朝鮮日報
夕刊 十九日(水)
本紙朝夕刊十二面
本社定期刊行物 朝光(月刊一回發行) 女性(同上) 少年(同上)

花柳病專門診療 結核研究所附屬醫院 尹治衡 京城府寬勳町一九七 電話光化門二六二七

海軍航空隊荒鷲群 敵空軍殲滅을決意
○○航空隊司令官談

【上海十九日發同盟】我空襲部隊는 初春부터 漢口四回、南昌五回及 長沙其他를 爆擊하야 敵空軍에 多大한 脅威를與하얏는데 요즘 數日來 南昌、蕪湖에는 敵機를 認定할수업게되엿다 現在까지 蘇聯으로부터 支那에 空輸한 飛行機는 約百餘機라하는데 이미 그大部分은 擊墜 或은 爆破되엿다 그大部分은 카―티스·호크及 베랑카戰鬪機及 마―틴重爆機等 大小爆擊機 總數約百數十機로 보이여 敵은 我軍의 空襲을 恐怖한남어지 남은飛行機를 各地에 分散하야 巧妙히 僞裝을하야 殘存에 機保存汲汲한 狀態이다 我荒鷲軍은 蔣介石이 더욱 抗戰을 繼續하는限 最後의 一機까지 破潰하야 敵機를 支那全土로부터 完全히 업새버리려고 熱烈한 決意를 굿게하고잇다 海軍○○航空隊의 汲汲司令은 蔣介石이 아직도 抗戰의 意를 갓고잇는限 徹底的으로 膺懲할터이다 支那全土 어데라도 敵機의 形態를 가진者를 볼수가업게되는 날이오게될것이다 어二、三日은 中止하고잇스나 그中에 또續行할것이라고 敵空軍殲滅의決意를 말하엿다

重大聲明에對해 國民政府反駁聲明

【上海十九日發同盟】帝國政府는 國民政府를 相對로하지안는다는 重大聲明에對하야 國府는 唐慌焦燥한나머지 昨日左와如한 要旨의 反駁的聲明을 發表하야 虛勢를부리고잇다 即
中國의 武裝抗日의 目的은國家生存을 保障하고 國際條約의 尊嚴을 維持함에잇다 中國은 和平의希望을 버리지안흐나 如何한 外國이라하더라도 그主權及土地와 行政의完備를 破壞함을 從應할수는업슬것이다 왜그러냐하면 이는中國의 獨立의 要素이오 또關係諸國과의間에 締結된 莊嚴한 條約을尊重하기爲함이다 中國政府는如何한 干涉下에서라도 힘을다하야 그主權及土地와 行政의完備를 守護하려는者이다 무릇平和를 回復하기爲하야 如何한條約이라도 此種根本原則에 符合치안는境遇에는 中國은 接受할수업는 同時에 日本軍占據區域內에서 如何한 非法組織의 行爲를하더라도中國政府는 對內對外的으로 모두效力을 發生치못할것이라고 認定한다

쇼탕佛國首相 再組閣에遂成功

【巴里十八日發同盟】쇼탕首相은 十七日午前 블룸社會黨首의 組閣拋棄後를 바더 再出馬를決意하고 組閣工作에 드러갓든바 十八日午後社會黨의 支持를 確保하게되여 急進社會黨을 中心으로한 左翼小會派를加한 第二次쇼탕內閣의 組織에 成功하엿다 쇼탕人民戰線內閣 崩壞以來五日로 首相의椅子는 본네藏相을 經하야 再次쇼탕首相에 드러오게된셈이다
(寫眞은 쇼탕氏)

新內閣의閣員

【巴里十八日發同盟】新內閣은社會黨一名 獨立左派一名을 除하고 모두 急進社會黨員으로 成立되엿는데 藏相은 본네氏代身으로 마르산드氏가 就任하고 본네氏는 無任所相으로 今後政府의 財政經濟工作의 調整에當하기로되고 一方外相에는 델보스氏가留任하야 佛國外交方針은依然 變更이 업슬것이라한다 其他國防省은 에드왈·다라지에氏가 依然國防相으로 留任하야副總理를 兼하고 獨立左派프로삿살氏는 無任所相 사로氏는 內相으로 就任하엿다

新內閣의抱負

【巴里十八日發同盟】新內閣組織에成功한 쇼탕首相은 十八日深更新聞記者團에對하야 內閣의抱負를左와如히 聲明하엿다
新內閣은 全國民의輿論에依하야 獨自의社會改革을行하는一方 國內治安의安全을 維持할方針이다 余로서는 總選擧에依하야 確立된 諸原則을尊重하는同時에 어듸까지 調和시키기에努力하려한다

轉換期의統治方針
學制及兵役의劃時期的政策 ❶
洪鍾仁

國民政府의 長期抗戰에對한長期膺懲을目標로 政府의 對支重大聲明이發表되기 바로하로前인 十五日 宮中에參內하야 『時局下의 朝鮮의現狀, 特히 內鮮一體를 中心으로한 人心의 動向及今後의 施政上 重要問題―就中 目下 計畫進行中인 學制의改革과 朝鮮人의 志願兵制度에對한 劃期的重要問題를 闕下에委曲伏奏한 南總督은 國民政府를 相對치안코 新興支那政權의 成立發展을 期待하는 同時에 堅忍持久의長期戰態勢의 重要가 內外에 彌漫한 오늘! 十九日東京을 出發하야 飛行機로北鮮 歸任하엿다 併合後四半世紀에 重要非常의事實도만치안코 統治上 社會經濟政治의各般에 劃期的 政策도만치안앗스나 果然今次 南總督의 指導的인 內鮮一體精神을 主調로한 學制改革 志願兵制度야말로 또한다시업는 劃期的인 統治의重要政策이라할것이다 그러나 이 뿐이아니라 우리의 注目을끄는 바는보다더큰『重要政策』의 示顯은 오히려 今後에 또 잇슬 것이라는點이요 우리가 좀더解明하고저 하는바는 오늘의 重要政策의 實施를보게된 今日의 時局과 朝鮮及朝鮮人의 問題에 잇는것이다.

曾經 滿洲國大使로 大陸政策의 一國防第一線에서 東亞安定確保의 重責을다하고왓든 南總督은 赴任後『鮮滿一如』의 標語下에 國境線은 黑河에 엇숨을합하는 同時에 民衆의注目은 國의西北에 두기를 提唱하엿든것이다。 內鮮一體思想의强調는 國體明徵思想과 同時同格으로 朝鮮人民에對한 指導精神으로 햇든것이다。 여기에 宇垣總督時代로부터 準戰時體制대로 移行中이든 產業經濟思想指導政策은 一層格段의 强化를보게되엿다 勿論그간에는內外情勢에 急激한 變化가 또한 革新的 緊迫味를 加重한것도事實이나 그보다도 南總督의 赴任은 大陸政策의 새로운展開를 爲한朝鮮의 任務를 强化케할決定的 前提이엇슴은 推測의程度를지나친 定石的인 順序이엇든 것이엇다。 南總督의 任務는 新大陸政策의 歷史的 路線上에서 隨時縱橫으로 表顯될것이 約束되엿든것이다 產業經濟政策에잇서서 日滿經濟는 本來가國防上政治經濟의 表現이 잇거니와그中에 處하야 南으로 日本內地와 海峽을 隔하고 北에大陸과 接壤한朝鮮은 遙大한 大陸作戰上 當然히 第二兵站基地가 되지안흘수업다。兼하야 金、鐵、石炭、電力、其他鑛工資材를 거이 無盡藏으로 包藏하고잇고 各種農產이 또한富有함에랴。內地資本이近年特히旺盛히進出하는 關係도 엇든터에 南總督의 內鮮滿을 一貫해본綜合的見地에서의 朝鮮開發이라는見解는 一層 더注目을 끌어왓다 產業開發即物的動員에 格別한重點을두는同時에 南總督은 人的動員에도 置重하지안흔것이 아니다 即 內鮮一體의 超特强調

歷史의 새페지는 다시 열리엇다 年來로 連日과 가티 發生하는 蘇滿國境에서의 陰謀한 衝突事件 北支에도 國民政府의 抗日即戰論의 轉導深化。그러한 운데서 마츰내 蘆溝橋事件이支那事變으로 全面的 發展으로보아 時局은 完全히 戰時體制下에 들어거니 朝鮮은 여기에다시금 物과人의 國家總動員 圈內에서도 任務가 더욱 緊急重大化하여젓다。內鮮一體精神의强調와 그發露는 格段의 注目을끌게되엿다。事變은 다시發展하야 北支에는 皇軍의 指導協力下에 新政權이 急速度로 體制를 가추어 압으로 更生支那의 建設과 아울러 支那中央政權으로서의 成長이잇슬것은 政府聲明에서 더明確히看取할수잇는것이다 여기에 이르러 今日의新大陸政策은 中央의緊密한指導下에 地理的으로 京城(朝鮮)、新京(滿洲)、北京(支那)의三角形의 新樞軸이 劃해진것을볼것이다 長期戰의消耗的 一面에 生產的大陸經略은 여기에또 잇슬것이어다。

總戰時體制下에 事變豫算까지近七十億의 國家豫算이 上程될 議會再開를이 압두고 朝鮮의新統治策에 萬端의誤解를어든 南總督은 오늘歸任하엿다 五億五百萬圓으로膨脹한 朝鮮豫算도 新戰時體制下에 時局一色, 資源의 物的動員에 最重點을두는 同時에 內鮮一體의具現은 學制改革 即 內鮮共學, 朝鮮人의 志願兵制의 實施에依한 人的動員下에 새로운動變은 그첫階段에 들어간다。그러나 오늘의 이것은 겨우 그 出發일것뿐, 아프로의動員이 또한 큰것이 잇슬것이니 우리는 南總督에게 돗고지푼바이 아닐수 업다。

政府及政黨各派 對議會策을熟考
議會에臨할陣容整備

【東京電話同盟】事變下最初의第七十三回通常議會는 마치내 二十一日休會가 滿期되여 二十一日부터 貴衆兩院이모두 再開되게되엿스므로 政府를 爲始하야 政黨各派는 臨時閣議或은 黨大會를開하고 各其議會에 臨할陣容을整備하고 對議會策을 講究키로되엿다 即政府는 二十日首相官邸에 緊急地方長官會議를開하고 去十六日發表한 重大聲明에 基하야 軍民一途 擧國一致하고 國民政府抹殺에 勇往邁進하는政府의 眞意를 國民一般에 徹底시키는 同時에 同日午後臨時閣議를開하고 議會提出諸法案의整備를行할 豫定이다 一方民政黨은 同日午前十時上野精養軒에서 所屬兩院議員과 評議員의 聯合會, 뒤이여午後一時부터 黨大會를開하고 政友會도 同際午前十時부터 芝三緣亭에 幹部와 豫算委員의 聯合會, 午後二時부터 第一俱樂部 國盟 東方諸會派도 本部에서 大會를 開하고 社大黨은 各其黨大會議員總會를 開하고議會再開를 目前에두고 宣言決議를 發表 黨總裁或은 代行委員의 演說에서 事變下重大議會에 臨할 各黨의態度를 天下에 表明하기로되엿다

臨時閣議

【東京電話同盟】十九日의 臨時閣議는 午前十一時四十五分首相官邸에 開催되엿는데 近衛首相, 永井遞相으로부터 電力國家管理關係의 四法案內容에 對하야 詳細한 說明이잇서 各閣僚가 모두異議업시 이를 承認하고 同法律案을 再開議會劈頭에 提案하기로 決定하여 懸案의 電力國家管理案은 議會再開劈頭提案케되고 正午散會하얏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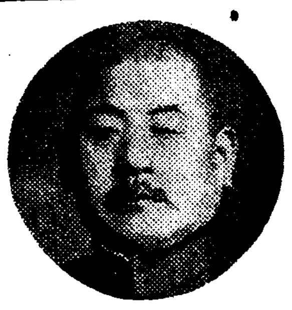
揚子江沿岸에 토치카八百築造

【紐育十八日發同盟】支那軍은漢口死守의決意를 鞏固히하고 揚子江沿岸의防備警戒에 努力中인데 十八日 紐育에達한 A·P南昌電報에依하면 支那軍은 最近九江으로부터 漢口에至하는 揚子江岸百粁地點에 砲機關銃八百門을 裝備하는 토치카八百의築造를마치고 이미糧食六個月分을 貯藏하엿다한다

廣東全省 糧食飢饉에逢着

【香港十九日發同盟】廣東省政府主席吳鐵城은 廣東省內의 食糧問題를解決키爲하야 一個月前부터 廣東糧食委員會를 設立하고 生產消費의調節 特히 綜合的需給에注力하여왓섯다고하는데 同委員會의委員 沈鵬飛의談에依하면 糧食의缺乏은 極度에達한模樣으로그原因은 西江、東江、北江流域이 昨年夏氾濫하고도虫害가發生하엿기때문에 海南島及北海一帶는 非常한凶作에도不拘하고 水陸運輸가 困難케된것 粤漢鐵路가 軍需品輸送에 使用되며도 日本軍飛行隊의 爆擊으로 湖南江西 安徽方面으로부터 米輸送이 困難한것 安南 暹羅米의價格騰貴는 我海軍의 交通遮斷等이 列擧된다 그리고 萬一同地方에 戰爭이 波及되면 廣東全市는 即時恐怖할 食糧飢饉에陷入할念慮가充分히잇기때문에 同委員會는 그對策에腐心하고잇다

南總督大邱到着
十時卅五分列車로歸京



南總督은 十九日午前十時四分福岡飛行場發旅客機로 一路歸任하든 途中 大邱以北의天候不良으로 十一時五十分大邱飛行場에不時着하야 午後二時四十二分大邱發同十時三十五分 京城着列車로 歸京할터이다 (寫眞은 南總督)

南總督談

【大邱電話同盟】京城歸任途上에잇는 南總督은 大邱以北의 天候가 不良하기때문에 十九日正午大邱飛行場에 不時着하얏는데 旅客機로부터 나리자 即時自動車로 陸軍病院에 至하야 白衣의勇士를 慰問한後 午後二時四十二分大邱驛發列車로 京城하얏는데 總督은如左히말한다
今回學制改革과 志願兵制度問題는 朝鮮에 對하야 劃期的問題로 如斯한 重大問題가極快하게進行된것은 支那事變에際하야 朝鮮의人士가 皇國의臣民이라것을認識하고 銃後의赤誠을 披歷한結實에 不過하다 余도大端히 기뿌게도러온다 京城까지直行할터이엿스나 天候가不良하야 大邱에不時着하게된것이다

雲南兵도加擔하야 南昌防備에必死
鄱陽湖畔에堅陣構築

【紐育十八日發同盟】十八日AP南昌電報는 南昌을中心으로한支那軍의 防備에對하야 左와如히報道하얏다
南昌을 中心으로 漢口로進擊하는 日本軍을 防止코저 急派된 數千의 雲南兵으로充滿하고잇는狀態이다 彼等은 모두 佛領印度支那經由로 輸入된 佛國製 武器로 裝備하고 佛國製의 鐵兜를쓰고 잇스므로 곳알수잇다 鄱陽湖에는 精銳部隊가 配備되여 鐵條網을치고잇다 鄱陽湖로부터 揚子江에至하기까지 蜿蜒히塹壕가繼續되여잇다 이는 南昌에 根據地를 둔 支那飛行隊의安全을 確保하기爲함이다 一方南昌市內에는 目下六千名의 負傷兵이 메소디스트病院 별드윈病院女學校、南昌大學等에 配分收容되여잇다 南昌市民의 三分之二는 이미거듭하는 空襲을恐怖하고 避難하엿든데日本軍飛行機의 空襲을 恐怖한 나머지 [illegible] 最近木工을 動員하야 [illegible]型飛行機를 製造하야 이를飛行場에配列하고 日本軍의눈을避하려고하고잇다

암스테르담會議 一切內容을極秘에

【부뤼셀十六日發同盟】十三、四兩日孫科立法院長을 中心으로한 支那『軍事會議』에出席한 顧維鈞駐佛、郭泰祺駐英兩大使는 암스테르담으로부터歸途 부뤼셀에 들럿다가 十六日午後브뤼셀發 各其歸任하엿다 但암스테르담會議의內容에對하여는모두緘口不言하나英蘇兩國의對支援助策에 討議된것이라고想像되고 一切를 極秘에附하여잇다

黑鐵複線完了

【某處着情報】蘇聯極東赤軍作戰兵站의生命線인 黑龍鐵道의複線工事는 一九三一年에 着工하야 게·페·우의鐵劍의 危險아래 强制勞働者의 忍苦는勿論 生命까지도 犧牲하야 一九三五年末까지에大部分의 工事를 終了하고 爾來專혀『뷰레야』(舊敗케가레보)以東『하바롭스크』間의 鐵橋架設工事에 專力을 傾注하고잇든바 昨年末에 全部竣工하야 『카린스카야』와『하바롭스크』間 全線二千二百粁의 完通을보게되엿다 이線은 氣象及地質的條件에잇서서 별로조치못하고 設計及施工에잇서서 缺陷이 만키때문에 複線으로서의 價値를 넉넉히發揮할수업는 狀況이나 東支鐵道讓渡後唯一의 蘇聯本國과 極東을連結하는 鐵道로서 그意義는 相當히 認定되고잇다

新駐支英大使 클라카氏赴任

【倫敦十八日發同盟】휴겟센大使의後任으로 駐支大使에 任命된 아―치볼드·크락카氏는 外務省當局間에 新對支政策에對하야 여러가지 協議를 거듭하고잇든바 마치내 二十二日마르세이유出發의피오츠輕카이자號로 夫人同伴上海로 赴任하게되엿다

羅國會解散

【부카레스트十八日發同盟】루마니아 의 고가內閣은 十七日夜國會에解散을 命하엿다 新議會選擧는 下院三月二日 上院三月四日에 行하고 新議會는 三月十日召集될豫定이다

○○部隊長 靑島에到着

【靑島十八日發同盟】驍軍長驅山東省을 席捲한 ○○部隊長은手兵○○名을 引率하고 白雪에파무친 山東平野百數十粁을 三日으로突破 午後一時半 靑島에到着하엿다

敵軍二百逆襲 齋藤部隊邀擊

【杭州에서十八日發同盟】十七日正午頃富陽附近의 高地에 約二百의敵이逆襲하여왓스나 我齋藤部隊는 이를 邀擊 交戰約二時間後 敵은 約三十의死體를 遺棄하고 潰走하여버렷다

八面鋒

◇重慶으로부터 新疆을 거처 中央亞細亞鐵道에 接續하는 新線路를 計劃하고。
◇카린스카야 에서 하바롭스크에 達하는 黑龍江鐵道의複線이完成되엇다고。
◇蘇聯의 對極東進出策이 露骨化함을 可知。
◇英國은 來二月 新嘉坡의開港式을 機하야 十二隻의 大艦隊가 來航하고、
◇米國서는 參式한 巡洋艦三隻이 新嘉坡에 滯留한다고。
◇對日示威냐? 有事之秋의 對備냐?
◇時局은 正히 三國干涉以來의 重大性。
◇近衛首相 時局談中 第三國介入의 排擊은 必要하나 實際上은 介入이 便利하기도하다고。
◇獨逸이 斡旋을 하다 失敗하얏스니 伊太利나 佛國이 나설지 支那의 背後操縱이 늘問題。
◇新規豫算中 時局關係의 것을除하고는 產金獎勵費 二百九十萬圓 警察費 二百八十萬圓 司法警察費 二百六十萬圓 勸業費 二百七十萬圓이 큰것。
◇골드·러쉬時代임을 可知。

全印度國民大會 二十日하市에서開催

【아리하바드十八日發同盟】깐디氏를 首班으로한 全印國民會議派는 二十日하리프라 에서 大會를 開催하기로 되엿는바 十八日同大會議長에는 前캘카타市長 포―스氏가 任命되엿다 포―스氏는 깐디氏의 印度國民運動의指導에 當하야 英國官憲에게 數回나 投獄된 經驗을가진 全印國民會議派의 闘將이다

日支大使歸國 米國서도關心

【華府十八日發同盟】川越大使에歸國命令이 訓電되고 또支那大使도 自發的으로 歸國하기로決定되엿다는 東京電報는 米國서도 相當히 注意를 惹起하엿는데 目下政府方面에서는 日支兩國이 모두大使館員及 領事館員을 그대로 現地에 殘留케한다는 點等으로보아 即時外交關係斷絕을 意味함은아니오 오히려將政權을 中央政府라 認定하는結果로될것이라하고 日本政府에그 意思업다고하는 風見書記官長의談話는 日本에 宣戰布告의意思가업는것을明瞭히 한것으로事態는 마치西班牙에 잇서서의兩政權의 對立과 가티觀察하려는듯이 우려젓다 大使召喚問題는 十八日헐國務長官과 新聞記者와의定例會見에서 이것이 米國에 如何한 影響을 미칠것인가에 對하야 質問이잇섯는데 헐長官은 一切言明을 避하고 그리問題삼지안헛다

米海軍編隊機 산디에고出發

【산디에고十八日發同盟】米國海軍의 精銳爆擊機十八機는 豫定보다 조금늣게 十八日午前九時三十八分 산디에고 空港을出發호놀룰루港으로向하야 大編隊 輸送飛行의 壯途에올랏다 豫定대로되면 산디에고、호놀룰루間 二千五百七十哩를 約十八時間으로 飛破할豫定이다

時事解說
軍需工場管理令

◇ 陸海軍에서는 對支重大聲明을契機로 新事態에對應하기爲하야 去十七日부터軍需工業動員法을 發動하야 軍需品工場一部를 管理하기로되엿는데 陸海軍當局談으로 明示된바와가티 이는對支膺懲徹底를 期하야 마츰내 本格的工業動員에 [illegible] 「[illegible]의目的은 [illegible] 가장 適切한 軍事上要求에 適合시키기爲하야 官民協力一致의 實을收하려잇다」는것으로하야 同法制定以來 適用된것이今回가 最初이오 南京이 陷落되고 支那主要都市를 攻略한 今日에 이것을 決行하게된때 重大意義가 잇는가한다。
◇ 即 軍需工業動員法은 大正七年에 制定된것인데 이것을 今回의 支那事變에도 適用하기로 昨年末 改正하기는 하엿스나 아직 適用한일이업섯다가 今回 一月十五日에 公布된 [illegible]令에依하야 實施하기로된것으로 보아 實로 이에 [illegible]는것이 아니오 工業今後의 [illegible]를 暗示하고 工業人全般의 一層의 決意와 努力을 要請하는것에 보담더큰 意義가 잇는가한다。 왜그러냐하면 今回의重大聲明으로 表明된 新事態는 東亞永久의 和平確保를爲하야 敢然 必要手段을 辭치아니하는것이나 지금에 抗戰能力을 거의 喪失한 國民政府는 對象이 아닌것이오 이를 움직이는 그背後의勢力이 對象이 될 것임으로써다。
◇ 即 이것을 率直하게말하자면 抗戰能力이업는 國民政府로하여곰 長期戰을 繼續케하는것이 英蘇이以上 이英蘇와의 連絡을斷絕케하고 抗日政權을 撲滅키爲해서는 [illegible] 相當한바가 잇서야할것이니 이長期戰에 備해서는 官民一致 軍需品生產의 統制를 合理化 能率化하야 [illegible] 充足을 [illegible]의 目的을 [illegible]다。 여기에서 工業人의 [illegible]의 新事態에 [illegible]識과 이 [illegible] 覺悟를 [illegible]다。

今日臨時閣議 對議會策을協議

【東京電話同盟】政府는 再開議會가 切迫함에따라 對議會策을 協議하기爲하야 十九日午前十一時부터 首相官邸에 臨時閣議를 開하기로되엿다 또 豫定되어잇든 閣僚의 關西行도 議會再開를 目前에두고 이미 餘裕가업스므로 一時中止하게되엿다

孫科莫府行理由

【암스테르담十七日發同盟】在歐洲支那大公使는孫科特使를 마지하고 암스테르담市에 參集하야十三、十四兩日間 重要協議를遂하고孫科는 十六日莫斯科로向하엿다고傳하는데 實은右會議는 十六日도 極秘裡에 續開되여 孫科는 同夜伯林經由로 莫斯科로向한것이 判明되엿다 孫科는伯林에서 支那大使程天放과會見하고程大使로부터 極東問題에 對한 獨逸의 態度를 聽取할터인데孫科는 암스테르담出發에際하야倫敦行豫定을 變更하야 먼저莫斯科로向하는 理由를 左와如히말하엿다
支那는 現在英國에서 外債를 이르킬必要는 업스나 余는 먼저倫敦으로 가려생각하엿다 그러나 只今余가英國을訪問하면 支那의 對日抵抗의 決意의背後에 英國이存在하고잇다는 印象을與함으로 倫敦行을 後로미루고 莫斯科로 赴하기로하엿다
그리고 암스테르담會議에서各大公使는 日支紛爭의 外交的側面을 가장重要視할것이라는데 意見이一致되여 孫科는 他國을訪問하기前에 먼저莫斯科로 急行하기로되엿다고傳한다

許大使一行 廿日香港에向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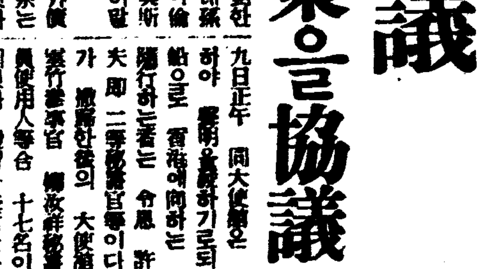
【東京電話同盟】我日本의 國民政府否認과 中華民國臨時政府의誕生에따라 我國在留支那人間에도 五色旗下의 新政權參加를 表明하는者 續出하는中에 靑天白日旗를 揭揚하고國民政府代表로 苦難의殘日을 지낸許世英駐日支那大使는 去十六日帝國政府의 重大聲明에 依하야 我國의 斷乎한 決意를알자 마치내去就를決할時期에 切迫되여 過日來二十日夕刻 出帆의 加奈陀汽船엠프레스·어브·러시아號로 故仲序의假名下에 隨行의大使館員八名과암께 撤退命令에 應하도록 船室豫約을하고 一方最後의 決意에對하야 連日協議中이든바 十七日午後四時大使館二層會議室에楊雲竹參事官、令息許公華等其他館員을招致하고 大門을굿閉鎖하고 深更에至하기까지 協議를거듭한結果 마침내 故仲序의假名을버리고 二十日 同船으로 香港에向하야 日本으로 撤退하기로決定하고 十九日正午 同大使館은 撤退에對하야 聲明을發表하기로되엿다 同船으로 香港에向하는者는 許大使 隨行하는者는 令息許公華、馬夫 即 二等書記官等이다 許大使가 撤歸한後의 大使館에는 楊雲竹參事官 郭秘書官其他館員使用人等 十七名이 殘留케되엿다 殘留하는者들은 主人업는 館內에넘어 靑天白日旗와蔣介石肖像을 직히며 暴風이부러치는 한가운데에 靑空만바라보고 一縷의希望을가지고 殘務를 執行하기로되엿다

河北省의新陣容

【天津十九日發同盟】河北省長高凌霨氏는 十九日着津以來 省公署의 陣容整備를 急히하고잇드니 十七日教育廳長 陶尙銘 十八日建設廳長 陳曾栻氏가 着津하야 玆에全陣容을 整備하게되엿스므로 마치내 積極的으로 河北省內 救濟에 進出하기로되엿다 全陣容은 左와如하다
總務廳長 孫潤宇
警務廳長 沈同午
民生廳長 王潤貞
財政廳長 張志徵
建設廳長 陳曾栻
敎育廳長 陶尙銘

中立法은不發動
루즈벨트大統領言明

【華府十八日發同盟】川越大使撤歸에 關하야 米國政府가 中立法을 發動할지안할지는 支那事變의 動向에 重大影響을 주는것으로 注視의 的이되여잇는데 루즈벨트大統領은 十八日新聞記者와의 定例會見에서 中立法發動의意思가업는것을 表明하야 左와如히말하엿다
川越大使의 撤歸는即時外交關係의 斷絕을 意味하는것은 아니다 따러서 米國으로서는 即時로 行動을 取하고저考慮하지안는다 但이미聲明한바와가티 米國의 極東에對한中立政策은 二十四時間을基礎로하야 새로운 情勢의變化에 對應하야 언제던지 實施하기로 되엿다
또極東現情을 調査하기爲하야支那에赴한 比島高等辨務官 마크낫트氏의 現地報告에對하야 루즈벨트大統領은 記者團의質問에對하야 如左히答하엿다
마크낫트氏는 最初華盛頓으로向하기前에 마닐라府의 米國亞細亞艦隊司令官야넬提督에 會見할豫定이엿스나 야넬提督의形便으로 實現되지안코 그때문에 上海로向하엿든것이다

코나쁜사람
(靑謄의手術不要)

압흐지코 누구나 自宅에서 할수잇는 治療와 그方法
埼玉縣大宮町(氷川公園) 東京鼻科藥房研究所

漢日鮮滿新字典
附音順索引
李命七先生 編
李允宰先生 한글監修
文世榮先生 滿、華音監修
初版賣盡·再版出來!
우리日常生活에 가장 重要한 字典이 한글로 完全히編輯한것이 업슴을 늣기게되여 編者가 五個星霜을 苦心硏究하야 編輯하고 印刷에 三個年을지내서 이제야 비로소 字書界에 新彗星이出現하엿다。 一家에 一冊式 備置하시라!
內容=每漢字마다 朝鮮音、日本音、滿洲音、中華音을一一히對照區別하야 字意를 解釋하고 若干의 活用熟語를 付하고 한글로 그義意를 詳譯함 卷首、卷尾에 部首索引을 並附하고 全編各字를 發音順으로 索引表를 卷末에添付함 康熙字典、中華新字典、辭源、國音字典等 數十種의字典을 基本삼고 新制使用하는 字音을 無漏收容함
附錄=漢字의朝鮮音規定 한글綴字法의規定 華音表記規定 滿音表記規定 假名字의規定 (全部數十頁)
洋裝金文字入·八百頁 定價金一圓二十錢 特價金一圓(送料並)
全鮮各書店에서發賣함. 品切된時는直接本社로注文하시옵
京城府寬勳町一二二番 發行所 三文社書店 私書函光化門局三十二番 電話光化門③二三五六番 振替口座京城九一七五一番

六種에四圓七十錢

時代進步에따라純金代用合成金을發明되고金바른金張品과는全然다른 純金과꼭갓튼 製品을 永久히 變色치안는 ... (男女얼골이하게되는美顔補一瓶無料同送)
京城府長沙町二九 泰昌工業所 振替京城二二五〇九

金浩龍編 獨唱名曲集 定價一圓 送料九錢
販賣 京城 鐘路 和信樂器部 朝鮮音樂敎育協會

宣川信聖學校도 理事會서經營決議

學校不動産의讓步를傳道本部에請願

本部指示電報에一縷希望

【宣川支局電話】소위교유이회원측에의하야 일천구백삼십구년삼월말까지에 학교경영에서 인퇴하기로 선교회실행위원회에서결정된후 학교의운명에 중대책임을지고잇는 신성학교(信聖學校)리사회는 지난십팔일오후한시 지남행리(南行里)동사집에서 위원십이인이 참석하야 개회하엿다 개회직전 방청을요구하는동창회원과 신문기자의 입장을절대거절하고 비밀리에 회의를계속하엿는데 그내용을드른면 개회직후 선교회대표로서 읍써ㅣ버로 출석한 미순회 실행위원장 로ㅣ드씨로부터 작년십일월이십구일 미순회 실행위원회에서 결의된사실을 구두로통고한후 지난 십오일 미국 전도본부로부터 온 전보 내용을 발표하야 이를 중심으로 회의를 진행하야 다음과가튼 내용의결의를짓고 전보내용에 비최이는 일루의 희망을바라서 다시성의를다하청원을하야 다시 회답을기다려 다음에 남은제반문제의 구체적 결정은 오는사월이십오일 긴급리사회로 연기하고 동룩시경에 폐회하엿다

◇決議

一、신성의교는 리사회에서 계속경영할것

二、각교회와 동창회의승인을구할것

三、미국전도본부에부동산과학교재산의양여(讓與)를 청원할것

傳道本部電報譯文 실행위원회에서 선천의교의헌장(憲章)을 해석하는견해는 경화하다고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학교를계속함에대하야 로회들이 원하는바 협동할것을 명백히표시하면조켓습니다 ‖레ㅣ버ㅣ‖

오늘부터第三學期!

年年激增을보이는 幼少年의交通禍

昨年中市內死傷百八十七名

一般家庭에大警鐘

기보=작년일년동안 경성시내에서 생긴교통사고총건수는 구백구십칠건의 다수에 달하는중 사자가 마흔네명 부상자가칠백여서명이라는 수짜를보이고잇스며 그대부분은 도시교통기관의 두기둥인 자동차 전차가 저즈른것이며 더욱일반의 주목을끄는것은 사자 마흔네명가운데 다섯살부터 열네살까지의 유소년(幼少年)의 죽엄이 아홉명 부상이 일백일흔여덟명이나 되는것으로 자동차에치여죽은 어린이수가 여덟、부상자가 아흔네명이며 전차에는 부상자다섯명이잇는것은 일정한궤도업시 스피ㅣ드를 생명으로하는 교통게의총아인 자동차도 도시어린이들에게는 얼마나 생명의위협을 주는 기관인가를 엿볼수잇스니 어린이들은 일반가정, 학동들은 부형의 각별히 주의할바인동시에 자동차업자로서는 크게 경계할바이다 이현상은 유소년을제한 일반남녀의 피해건수 유백스물두건중 열여덟명이 자동차에 치여죽엇고 삼백스물여섯명이 상한것을 보아도 알수잇는것이나 일정한 궤도를가지고잇는 전차가 작년일년동안에 세사람의 죽엄과 여든명의 부상자를내엇도 결코 거저두지못할 비참사로써 당국의 일층 주의할바라고하겟다 이것을 전년도와 비교해보면 소화십년에는 유소년의 사고건수가 백삼십칠건이든것이 십일년에는 백사십일건、십이년 즉 작년에는 백팔십칠건으로 해마다 격증하야가는것을 발견할수잇는것은 도시에사는 사람의심통사가 아닐수업고 그방지책으로는 일반교통업자들의 세심한 주의 교통경찰의철저와 아울러 일반가정의 교통도덕보급이 급선무로 요망되는바이다.

局鐵從業員千名 新春北支로進出

북지의 치안은 점점회복되여가는동인데 이에따라 교통의대동맥인 각철도의종업원은 작고 보충하고잇는동업으로 조선철도국에서도 약천명의 국원을파송하기로 내정하엿다 그들은해빙기를기다려 오는삼사월경에 출발하야 북지각철도에서 각방면으로 활약하게될터이라한다

應召總督府屬員 戰死傷者에慰問

전번에응소(應召)중이든 총독부직원중국세조사과(國勢調査課) 근고중부(根古重夫)씨는 낭자관(娘子關)전투에서 전상을바더 지난이월이십일 평양(平壤)육군병원에 입원중이며 삼림국(森林局)좌좌목청웅(佐佐木淸雄)씨는 평산해주하반(平山解州河畔)에서 전상을바더 지난이십륙일 용산육군병원에 입원중이고 또근리국근송육랑(近松六郞)씨는 내지부대에 응소중이든바 지난오일 병사하엿스므로 총독부직원동우회서는 위령키위하야 위문금과 향전(香奠)을 증정하엿다

水鎭面一帶에强盜

【義州】구년말과 곡물(穀物)매매기를 이용하야 의주군수진면(水鎭面)일대를 무대로하고 혹은두명식의 강도가 출몰하여 인명을위협한다하며 민심을 소란케한다 수일전 의주군 주내면(義州郡州內面)원화교(元化橋)부근산비탈에서 청년한명이 나타나 통행인을 협박하는것을 고함을지르자 그만도망을갓스며 이튼날저녁에도 한천교(漢川橋) 아래서 역시 수상한 청년이 나타나수진면에사는 김모(金某)를 협박하고 현금일원오십전을 강탈하여 갓스며 지난 십오일저녁일곱시경에는 동면석거동(石巨洞)에서장작을사하는 박성무(朴性武)(三)가우물내에서 장꾼보고자전거로돌아가든중 룡문동(龍門洞)진동이란고개에서 두명이 역시 곤봉을들고 위협하는것을 고함을지르자 복면은 달아나고말엇는것을보고 곳자최를 감추엇다하며 일반촌민들은 불안에싸여 잇다한다.

本妻강짜에鬱火

妻妾에게財産均配코 松林속에서結項自殺

【長湍】지난십사일 송천경찰판주재소(松川警察官駐在所)에자살사건의 급보가 들어오자 수석이하전원과 공의가 현장에급거출장하여 검시한결과 그는원적을 재령군삼강면오산리(載寧郡三江面吳山里)에두고 현재장연군대구면송천리(長淵郡大救面松川里)이백이십번지에 와서상업을하는김명순(金明順)으로그는 송천에와서상업을하여 제법재미잇는생활을 하여오든바 본처가 어린자식들까지 데리고와서 매일가티 성화를대이며평화를 깨치여 자살하게되므로 그는결심을한 남어지 장사하든 상품을 지난오일오전십일시경에 본처와 첩에게 평균분배하여주며 이것을팔어서 각기살라고 말하고 자기는 죽으러간다고하고 유유히집을나왓섯는데 일주일이 지난후에도 아모소식도업슴으로 고향에단이러 갓줄만알고잇는차 그가티 자기의생활을 비관하고 그날로동리송림(洞里松林)속에들어가 목을매여 자살하고 만것이라한다

販賣酒一齊檢查

鍾路署管內에서斷行

십구일 부내종로서위생계에서는 관내에잇는 약주、탁주등소선주양조상을 비롯하야 그판매점과 선술집에이르기까지 팔고잇는술을 제출케하야 약이백여명을 도위생과에보내여 그양부를 검사하기로되엿는데 그결과 나쁜것을판 상점에는 엄중한처벌을 하기로되엿다

公家注文品으로假裝 巨額의柴炭詐欺

市內各處서二千餘圓被害

東大門署에서犯人을逮捕

전과이범 봉래정(蓬萊町)사정목부흥시탄상(復興柴炭商)이라는 유명무실의 선전을하며 인장과영수증을가지고 다니며 부내각시탄상을속여 이천여원사기를하고 십구일동대문서에 체포되엿다

십구일 오전열한시쯤 동대문서형사두명이 자동차를몰아 경성역구내(京城驛構內)시탄부에가서 부내숭신정(崇信町)일백구십팔번지거주 전과이범 신기찬(申箕贊)(三五)을 체포하야다가 취조중으로 이자는 작년십일월십구일 부내계동정(桂洞町)리문영(李文榮)의 시탄상、상신상회(相信商會)에가서 자기는 지금 경운정(慶雲町)리우공저(李鍝公邸)에서 일하는사람인데 낙성을 바더섯는데 당신들것을 팔고 이익을 반분하자고하엿는데 이날비가왓슴으로 그곳에서수필삼선두문아페서 기다리든 신은마차부에게 남어지를 속히가저오라고하야 마차부가 계동으로갓스이에 숫 여든섬을 효제정(孝悌町)효일상회(孝一商會)에파라먹고도망한것을 비롯하야 부내각처에서 이가튼수법으로 삼십여건이천여원어치 사기를 하야가지고 일시는 인의정(仁義町) 모하숙에다가 첩 살림까지 버렷다가 밥갑을 떼먹고 최근 전기숭신정에 살림을차리고 계속적으로 사기를하여 오든것이라고한다

느러가는受刑者

一年間에八百餘名이增加= 全朝鮮에萬九千名

소화십이년십일월말현재 전조선형무소재감인원에 대하야 총독부조사에 의하면 수형자(受刑者)총수 일만팔천칠백사십일명 형사피고인 이천십이명 로역장류치자사백삼십이명 합계일만구천삼백구십오명으로 전월말에비하면수형자합계삼십사명의 감소인데이것을 전년동기에 비하면수형자삼백오십일명 형사피고인사백칠십구명 로역장류치자 이명의 각각증가로 합계 팔백삼십이명의 증가이다

문화의정도와 민도는 나날이 향상되여간다는이때 일년동안에 철창신세를지는 재감자가 팔백여명이나 격증하는것은 복잡다단한 이사회의 일면상을 여실히 말하는것이다

英靈卅九位 今朝龍山驛着

軍司令官以下歡迎

북지전선에서 전사한사서(寺西)준위이하 삼십구명의 유골은십구일오전열시오십일분에 용산역에도착되엿다 역두에는 소기(小磯)군사령관 심택(深澤)중장 좌백(佐伯)경성부윤기타판민다수가 엄숙히마지하엿다 여학생들의조가(弔歌)합창이잇고 군부측으로부터 소향(小鄕)준위의 사례인사가잇슨후 원대로 가서안치하엿다

(사진은 룡산역에서)

事變下의紀元節에 第二回精神動員

全朝鮮一齊히實施

장기항전을 호어하는 국민정부를사실상부인하고 동양평화확립을위하야 황화부흥의대지근본방침을 결정하여 근간중대화한 시국(時局)의극복(克服)에향하여 거국일치태세(態勢)의 강화에맹진하라고하는데 당하여오는 이월십일일 기원가절을 의의잇게 맛고저 전국적으로 제이회국민정신총동원강조주간(强調週間)이 실시 되기로되엿는데 총독부에서도 호응하여 전조선판민일치로 이주간에 참가키로결정하야 십팔일 대야정무총감(大野政務總監) 이름으로 각도지사를 비롯하여 각방면에 통첩을발하엿다 이통첩에 실민주간개최의취지는 흥아(興亞)일본의건설은 조국정신을 나타내다 그러므로 사변하의기원절을 기회로하여 국민정신총동원의중핵(中核)인국체관념(國體觀念)의명징 일본정신(日本精神)의 선양을강조하여이경을사회만반에 드러내려고한다는데잇다 각처에 의하여 이월일일부터 동십일일까지 일주간동안 작추행한제일회주간행사가 대대적으로 개최되여 시국인식과 국민의각오를 환기한것과가티 특히십일일오전십시에『사변아래기원절의시간』이라고하여전조선일제히 사일렌、기적、종을울리여 판공서등단체는 기원절봉배식을거행하고 또일반가정에서는 일제히황거를요배하며 거국일치의정신총동원의 결의를선명하기로되엿다

思想戰展覽會

내각정보부에서는 이월중순동경에서 방공(防共)선전과 황도정신(皇道精神)의 발양을 목표로 사상전전람회(思想戰展覽會)를 열게되여 총독부에로자료제출을 권하여왓스므로 최근조선의 황도정신의 발양과적화사상의 소멸에현저한 비약을보고잇슴으로 이기회에시국하의 조선의실정을일본내지사람에게인식시키려고 적극적 참가를 하기로되여 『황국신민의서사』『반도총후의적성』등 각국과에서자료를 수집하야 보내기로되엿다

志願兵五十餘名

志願兵制度實施한다는發表와 各地서申請한統計

조선인의 지원병제도공포는 조선민중에게 이상한 충동을 주고 특히 조선청소년들에게 소사나오는 애국의정렬은 속히도 헌병대 경찰서등에 지원병채용에 판하여 신고하여 오는자가 속출한모양으로 벌써경성헌병대헌병분대에 신고하여온자만 하여도 이십명에 달하엿는데 경무국에 보고하여온 전조선의경찰판계당국에 신고하여온조선청년은 십구일까지 경기(京畿)오명 전남(全南)육명 강원(江原)목포이명 경남(慶南)일명 평남(平南)일명 함북(咸北)이명합계 십오명에 달하엿다 그외전조선헌병분대경찰판수재소등을 차저오는자를 합산하면 오십명을넘을것으로보인다

除隊後志願兵 職業을優待

軍과總督府서斡旋

조선청년의지망에 응하여 조선인의지원병제도도 근일실시를 보게되엿는데 이제도의실시결과 용모하는 조선청년이 총독부서 육개월간의 특별훈련과 이개년의복역재영연한을 마치고 제대를한때 국가의군인으로써 아미우수한 훈련을바든 청년이되므로 총독부와 군부에서는 극력 이들 조선인 제대병에 대하야 우대하야 취직케할 의향을 가지고 잇스며 각관청은물론 경찰판 그외 민간업개방면에도 특별한 기대를가지고 잇는모양으로 제대후의 방도인 지원병은 재향군인으로든지 또 사회의 중심인물로되여 지도적지위를 확보할것으로 보인다

志願兵實施와 各團體의謝電

지원병(志願兵)제도실시가 발표되자 각방면에 다대한 반향을 주게되어서 각지조선인단체로부터 남총독에 감사전보가 속속도착하는동인데 십팔일까지도착된 주요한것은 다음과갓다

▲在新京朝鮮人各團體▲岐阜縣揖斐郡內鮮融和會▲奉天協和會朝鮮人靑年團▲延吉朝鮮人有志一同▲關東州朝鮮人會▲廣島縣協和會東部朝鮮人一同▲鎭海國防靑年團▲吉林東榮會▲圖們新興會▲營口朝鮮人一同▲龍井市民有志一同

"崇實"名號아레 最後의籠球戰

京平中等校對抗迫頭

【平壤】朝鮮中等籠球界의 最高峰인京城의中東 平壤의崇中이對時하는 京平對抗籠球戰은 今年當番인 崇實專門學校體育部主催와 本社平壤支局後援下에 崇專體育館에서 二十一 二의兩日間每夜午後七時부터 盛大히開催하게되엿다

至今까지의戰績은 平壤三戰二勝一無勝負 京城三戰二敗一無勝負로 平壤이리ㅣ드하고잇는만큼 平壤軍이連覇를할것인가? 京城이 今年에는 雪辱을할것인가? 더욱이 崇專主催미테 이對抗戰이 열리기도 今年이最後일것이며 崇中이出戰하기도 今番이 最後인만큼 感慨가實로無量한大會가아닐수업서 平壤市內에서는 最大의注目미테서『케임』이進行될것으로 豫想하고잇다

東京올림픽 英國이反對

倫敦으로부터온 情報에依하면 國際올림픽委員會(會員인『바ㅣ레ㅣ』卿은 東京올림픽大會開催가 疑問視됨으로 東京에서 올림픽大會가 不可能하면 芬蘭『헬싱키』또는 倫敦에 優先權이 잇다는 意見을 陳述하엿다 이에 對한 米國側態度는 東京大會를 支持하고 잇는데 東京大會決定當時에는 日本을支持하든 英國의態度豹變은 支那事變에 따르는 反日的態度임은 勿論이요『카이로』會議에서도 東京大會反對論이 이러날것으로豫想되는데 此際에日本으로서는 카이로會議를 기다리지안코 準備를 進捗시켜 具體的報告를 各國에對하야 行할方針이라한다

天氣豫報

概況 低氣壓은 北海道中部에잇서 北東으로 進行하고잇스며 또弱한低氣壓은 滿洲及東支那海에잇고 高氣壓은 蒙古及本州의 南海上에퍼지고잇다 北滿洲는 눈이오고 南滿洲는 개이고 朝鮮은흐리겟스나 一般으로 추위는늘렷다 日本內地는흐리며 處處에 降雨가잇고 北海道는 눈이오고잇다

豫報 京城地方은 今夜는흐리고 小雨雪模樣이며 明日은 개엿다 흐렷다하고 京畿道全區도 以上과갓다

昨日最高 五度七
同 最低 零下○度三
今日最低 零下二度
今日正午 ○度七

平安兩道에大雪

新義州龍岩浦、南市宣川、平壤寧遠間等

交通杜絕、遞送不能

【平壤支局電話】십팔일오전한시부터 오후여섯시까지 평남지방에는 눈이만히와서 대개일척이 훨씬너머 쌔이고 만흔 곳은 일척칠촌의 적설이잇서 이로말미암아 각지의 교통이 곤히진곳이만흔데 십구일오전열시까지에 평양체신분장국(遞信分掌局)에 들어온 전보를보면 개천(价川)파덕천(德川)사이와 신의주와룡암포(龍岩浦)사이와 룡암포와남시(南市)사이와 선천(宣川)과조악(雲田)사이와 평양과 녕원(寧遠)사이가 모두 우편물체송을 못하게되엿다고한다 그리고 연백(延白)과 녕원사이와 안주(安州)와순천(順川)사이는 자동차는 물론 인마의교통조차 못하게되엿다

各地에降雪

십팔일아침부터 조선중부이북에는눈이나러기시작하야 동오후여섯시에 끄치엿는데 경의선(京義線)의 신막(新幕)이북과 경원선(京元線)함경선(咸鏡線)의 북계(北溪)이북의 각연선에는 십내지 삼십「센치」의 눈이싸이엿다한다

社屋新築移轉

社屋新築 新製品發賣紀念

割增付大特賣

特賣規定（本社製品取合任意）

特賣A種原價十圓……割增金 定價二圓五十錢
特賣B種原價二十圓……割增金 定價五圓五十錢
特賣C種原價三十圓……割增金 定價八圓五十錢
特賣D種原價五十圓……割增金 定價十五圓
特賣E種原價百圓……割增金 定價三十五圓

特賣期限
自昭和十三年一月一日
至昭和十三年三月末日
特賣口數五千口

本社特製品一覽

方名	主効	定價
三仙膏	乳腫、關節炎、肋膜炎、一般炎症、其他各種腫	十〇、廿〇、三〇、五〇
共生目藥	眼疾一切	十〇、廿〇
共生蛔虫散	蛔虫、蟯虫、條虫驅除	廿〇
オイヒニン散	小兒諸疾特効劑	廿〇
共生ルゴール	咽喉病、鼻病特効劑	廿〇
安治淋	五淋全治特効劑	二圓〇
複方解熱散	感冒諸種熱病一切	廿〇
白軟膏	皮膚病一切	廿〇
共生ヨーヂユム液	一般外傷、切傷特効液	廿〇、三〇
共生マーキユロム液	化膿性、炎症性疾患、切傷、火傷及一切皮膚病	廿〇
共生チンクパスタ	火傷、濕疹	十〇
共生胎毒膏	胎毒、火傷特効劑	十〇
共生止痢散	急性腸カタル、慢性腸カタル、下痢及一般下痢	廿〇
共生生新膏	濕疹、乾癬、頑癬特効劑	十〇
デルホルム散	下疳、切創、膿瘍傷及一般傷處消毒劑	廿〇、三〇
共生胃散	消化不良、胃酸過多、胃腸カタル、胃痛、食慾不振	廿〇
ヒニンカプセル	マラリヤ、急性肺炎、神經痛、流行性感冒	廿〇
カマリン	寸白虫驅除特効劑	五十〇

追願

△特賣規定에依한貴注文에對해서는送料를本社가負擔함
△取引은先金又는代金引換에限함
△割增品은本社製品으로貴指定대로送呈함
△特賣期限中이라도豫定口數에達할時는斷然締切하오니時速注文을要望함
△營業案內請求直時送呈

特約店、代理店募集（同規約書依請求送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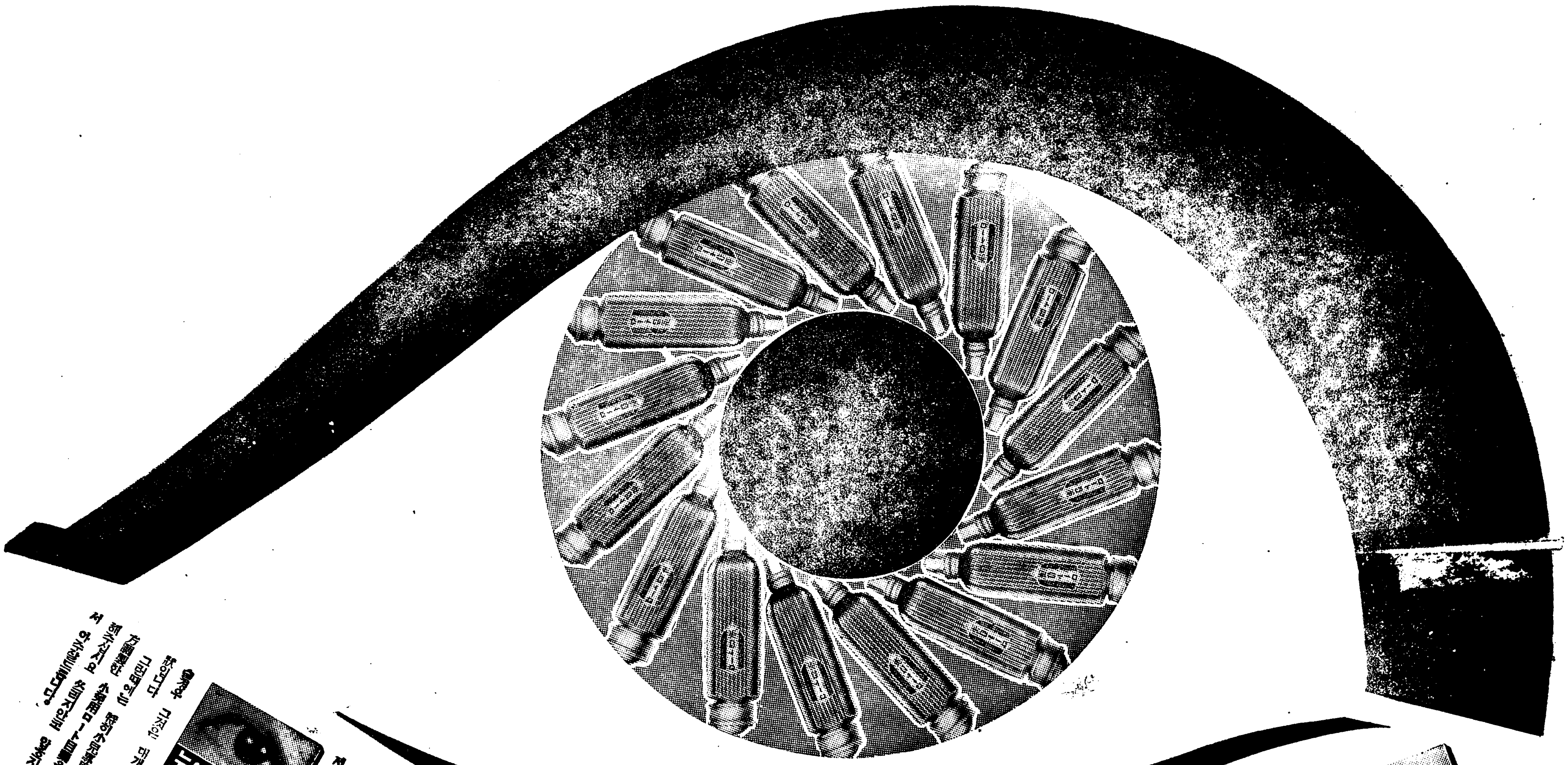
京城府樂園町二四三（新築移轉先）
京城府鍾路一丁目七一（舊營業所）
電光（長 一二七五 四四 五七）
振替口座京城二二〇〇二
私書函京城光化門三八番

共生藥業株式會社

治腫靈藥 三仙膏

補血·強壯·強精劑 판토크린 花鹿茸精 血 PANTOCRINE（星進券仕奉）

로-도안약



結膜炎

結膜炎은 俗에 물넘는눈·眼淚眼·붓은눈等이라고해서 眼病中에도 가장흔한것의하나입니다

이病에걸리면 結膜에 充血이되야 눈거풀이붓고 눈꼽이나고 눈에 異物感을 感覺하게됩니다 重해지면눈고름과가튼눈곱이나고 眼力도朦朧해집니다. 이것을 治療함에는 每朝洗面時에 淸水로눈을씻고 눈꼽을닥가내여서 ロート目藥을一日三回點眼합니다

ロート目藥은그……
1、殺菌作用으로病原菌을죽이고
2、消炎作用으로炎症을업새고…
3、鎭痛作用으로疼痛을업새고…
4、收斂作用으로面面、潰瘍面을收縮해서分泌物을抑制하는等各그性能이綜合的으로 活動하야 優秀한效果를나타냅니다.

角膜炎

角膜炎은 俗稱삼눈·삼시는눈·雲目·膚目等이라고하는 黑眼의炎症으로黑眼이 濁해지고 하얀것이 덥혀지고해서 눈이침침해보이고 몹시눈물이나며 눈꼿이 진무르기도합니다

療法은 大體結膜炎과갓습니다

ロート目藥의優秀한消炎作用은 角膜의炎症에 對해서가장有效합니다

도라홈

도라호-ㅁ은 처음結膜에 充血이되고 작되잔알맹이가생기는데 開目하지안키때문에그대로 내버려두면 허저서 眼球를刺戟하야 알맹이는 점점만을 感覺하고 거무자우가칠해지고 눈섭이까실까실해서눈알맹이를보기실케 하는 ... 서 대단히아파지고 重症으로移行해 이眼炎은 無한때治療하는것이었습니다. 重해지면 오래걸게되므로自然이治療가治療하기어렵게되는데 눈 每朝洗面後一日數回ロート目藥을 點眼하고 ... ロート目藥의 優秀한作用으로 ... 치료에 ... 그治療를 ... 합니다

小兒의눈에는

... 애기네들이 눈꼽이 잘 나고 눈곱이 안떨어지는것보다 ... 건지가 허자 ... 하게 充血해서 ... 方面에 ... 小兒用ロート目藥을 ... 해주십시오

◎ロート目藥의點眼容器

第一로 携帶에 便利합니다
第二로 使用法이 簡單하고 게다가 새어엎지대문에 衛生的입니다
第三으로 新案特許의 自動式임으로 一滴의徒費도 업습니다

○適應症

結膜炎 俗稱……
角膜炎 결이는눈
도라호-ㅁ 눈물넘는눈
疲勞眼 濕眼
學校眼炎 血目
眼瞼緣炎 爛目
角膜炎 黑目
結膜充血 흐린눈
麥粒腫等 말는아질 무은눈 다락지

價藥
小瓶 二十錢
大瓶 三十錢
營用 五十錢
小兒用 二十錢

▼全國到處藥店에잇슴

慰問袋에 目藥을!
皇軍勇士의눈을守護합시다

我皇軍은 北支와 上海에서 激戰又激戰、勇士의 눈은 晝夜의別이업시 過激한使用으로말미암아 大部分은 血膜에 炎症을일으켜서 빨가케 充血이되고잇슬것입니다

그우에 蒙古沙漠으로부터 휘날리는 黃砂와 戰塵으로 眼球는 損傷되고 或은 非衛生的인줄은알면서도 汚水로 洗面을하지안으면 안되는等事로因하야 角膜炎、도라호-ㅁ等의 眼病에 걸리기쉬우며 一旦눈病이나면 좀처럼 養生할름도업습니다

戰捷의 裏面에이러한 勞苦를생각할때 卓效至便의 ロート目藥의한 瓶이야말로 참으로 適切한贈物입니다

本舖 大阪 山田安民藥房

家庭

체격고르지못한 부인이난산한다
너무어린잉부와 중년이후의초산 가는허리굽은다리、모두자미적다

해산이란것은 부인의일생을좌하야 중대한 난판이라고 하지안흘수업습니다。

여기서 어떠한 체질의부인은 순산하고 어떤체격은 난산한다는것을 알아보기로합니다

난산하는 부인의 체격을 살펴보면 두가지의 극단이 잇습니다。

하나는전신왜소(全身矮小)로서 골반(骨盤)이 섬약한 부인입니다。

옛부터 미인의 전형으로서 수양버들가지 가는다란 허리를 가진 여자를 엡부다고한경향이잇섯스나 지금은 그러한 미인형은 끄리게 되엿습니다。

이러한 미인형은 아이를 나흘때 고생합니다。

또하나는 이와반대의 극단으로 강장한부인은 골반이 비만하고 구든까닭에 난산합니다。

이밧게 난쟁이골반(侏儒骨盤)이라하야 구루병(佝僂病)이나 연골의축증(軟骨萎縮症)으로부터 골반의발육에 변화가 생긴것으로서심한것은 난쟁이처럼생긴여자입니다。

또한자체각부의균형이서지안흔 여자와 척추가 구븐여자와 다리가굽지 구븐여자도 난산되기쉽습니다。

척추가 구버지면 골반에 이상이 이러나는것이며 다리가 구버지더라도 자체를 평형되게 가지라고 체중을 골반에 집중시키므로 골반에 이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리의 발육이고르지못하며 편절고테 알병이가 생기고 골반에 변화가 잇던지 내릴때 절름다리가된 부인도 난산합니다

다음에 복벽(腹壁)의 근육발육이 조치못하다던지복벽이 너무느러저잇다던지중병뒤에 신체가 쇠약해젓슬때는 복압과 진통이 약해짐으로 해산하기에 힘이듭니다。

나이에도 관계가 만히잇는데 열여덟이하의 아조젊은부인의 해산은 여러가지의 이상을 이르키기쉽습니다

그와반대로 나히가만허서 임신할때 가령 삼십세이상이되여서 초산을할때는 산도(産道)의 탄력이적어서 태아가통과할때 산도의 신축이 곤난합니다。그우에진통과복압이 미약해지므로 해산이오래걸립니다。

그밧게 영양상태가 납븐부인이나 특히빈혈이잇는부인은 난산합니다

또한 폐、심장、신장이납븐사람도 해산할때 여간경계하지안흐면 안됩니다。

임신중 얼굴과수족이 부으며 소변을 검사해보면단백질이 나온다는 부인은난산일뿐아니라 자간(子癎)이라고하는 무서운 병에걸리기쉽습니다

그러므로 미리산부의 체질과 건강상태를 잘조사하여서 순산하도록 예비하지안흐면 안됩니다。

다른병이 업거든 측접으로는 먼저말한바와가튼 산도의상태를 잘살피지안흐면안됩니다

산도는 골부산도(骨部産道)와 연부산도(軟部産道)로 구별되여잇는데 골부산도라는것은 골반을 가르처말하는것으로 그모양이 크냐적으냐 하는데 해산의중대한영향이잇습니다。

벌써견본이나온 신사『봄양복감』
스테이풀이득세를햇스나 순털로짠것은아직나먹다

그럭저럭 봄양복을 준비할때도 멀지안헛습니다

양복점에는 벌써 새견본이 나오기시작하는데 금년은 외국서드러오는 양복감이 두절되엿스며 여기에 또 스테이풀·파이버-를 석거서 짠것들을 입게되엿스므로 문제는 단순하지못합니다。

장기항쟁이라는 결의를한지금에 잇서서 사변은 어느때끗날지모르므로 양복감에대한 영향이 여간크지안습니다。

봄유행을 대강드러보면 감은 우-스테드를 중심으로하야 회색과 곤색이 새로히유행하기시작하는것도 주목할사실입니다。

그리고 가리로 넓은줄이진감이 단연리-드하고잇습니다。

스타일은 아직도 푸근하고여유잇는것이 유행되며 어깨는수평으로하고 푸근하며 길이는대단히 기러젓습니다。

바지통은 종래와가티 통이푸근하게 나려가다가 끄치조금좁습니다。

그대신 축기를 짤게하야 바지가 점게보이도록한것이 유행색입니다。

따라서 『써스펜더-』와 『밴드』를병용(併用)한편이이스타일을훨신낫게보이게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경향은 유행이란것에 너무추실하야 누구나 일률적지로 지워입엇스나 금년부터는 유행이란것을 다시자기본위로 소화하야 제각각제몸에맛고 취미에맛도록하랴는것이보입니다。

말하자면 유행을 초월한유행이라고 할수잇습니다。

그런데 금년봄양복감은 아직도 충분히 박래품의스톡이잇고 또한국산품에도 이월까지 우-스테드에한해서 순모직이 생산될수 잇스므로 비관하기까지는 업습니다。

일제로 수입품은 최근고마다 감소하고잇스므로 취미적으로박래품을쓰던사람은 별문제로하고 일반적으로는 지금곳 국산품만으로 양복지어야되도록 법률이 강제하더라도 곤난하지는안습니다

지금은 국산품이라 하더라도 박래품에지지안흘 우수한것이생산되고 잇습니다

스테이풀파이버-혼직도 종래부터 일부에서 통용되고잇든것이니 그것이 법령으로 강제된다하더라도 확실히곤란할것은 업습니다

다만 문제는 섯거서짜는양의 적고만흔것입니다。

스테이풀파이버-를 만히석거짠것은 탄력과보온력이 순모만못하고 다리면 번적번적해지기쉽습니다。

그러나 금년봄은 모든법령이 발령되기전에 준비햇든것이 만흠으로 다소값시 빗싸질것이나 제품에는 종래와별차이가업슬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유의해달라고말하고시픈것은 양복감이 우수한것이업거던 부속품을 너무 조흔것으로 쓰지말도록 하십시요

나종에 부속과거치 균형되지안흐면 세탁하기곤난한점이 만습니다

보비위가아니라 좀위해봅시요
남편을천대하는부인들께

치운날—하로의 일을마치고집을 향해가는 박갓양반은 포근하게 더운방안에 드러안고시퍼합니다。

머리와몸이 파김치처럼피곤해젓슬때 내집에 도라가서 한시밧비옷을 가라입고 가정의단란을 맛보랴는것이 한가지 락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박갓양반의심정을 살피고 그들의소원대로 더운방을 준비해두엇다가 박갓양반을 마저드리엿습니까

실로 한심한일입니다 제법살림사리에는 눈도밝고 귀도밝아서 월급봉투에대한 관심을 가질지언정 남편이 도라와서 마음과 몸을쉬일수 잇도록 방안을 데게하고 치워두는대는 조곰도 돌보지안흐랴는것이 요사히 가정부인네의 대부분이라고 하야도 과언이 안입니다 혹억울하다고생각하시는분은 계실지 모르나 그분들에게는 이말이통용되지안흘것으로 미루어버리겟습니다。

집엘드러가보면 언제나 방안이 싸느라코 옷을가라입을때는 어름속에 드러가는것처럼 전신이 옷실해집니다 이러한살풍경의방안에는 아모리가정이라하더라도 드러안저잇구십지안습니다。

사랑하는 처자에게도 자연마음이 머러지는것입니다。

이리하야 어디던지 더운방을 차저서 거리를 헤매이구시프며 차집가는데나 배회정엘 가게됩니다。그러저러 박가테서 저녁을먹고 잘때나 집을차즈랴는생각이납니다。

이것이 그만습관이되는날 당신은 남편의 밥상을 더펴노코 찌개끌른소리를 드르면서 눈물지울지도 모릅니다。

한집안의 주장이라기보담 한집안식구의 생명을 이어가라고 일사리에서 여러사람이며 머리를숙이고 마음에업는 시중을드는 남편의일을 생각하야 그가 도라와서 쉬일수잇도록방을 치우고 온방을 해주는것이 주부의 의무리기보담 부부간의 애정에 떠뜻한역이안일수업습니다

만약이러한것을 생각해본적이 잇습니까 밧갓손로만도리 다니며 회사에서 바른길로 집엘드러와본적이 업다는 남편에게그가 차저가는 차집이나 빠-나 그러치안흐면 마작구락부에서그가구하고잇는 질거움보다 더욱풍한위안을 주어서 그로하야금 내집에드러가는것이 틀도업는락으로알도록해보시면 하는생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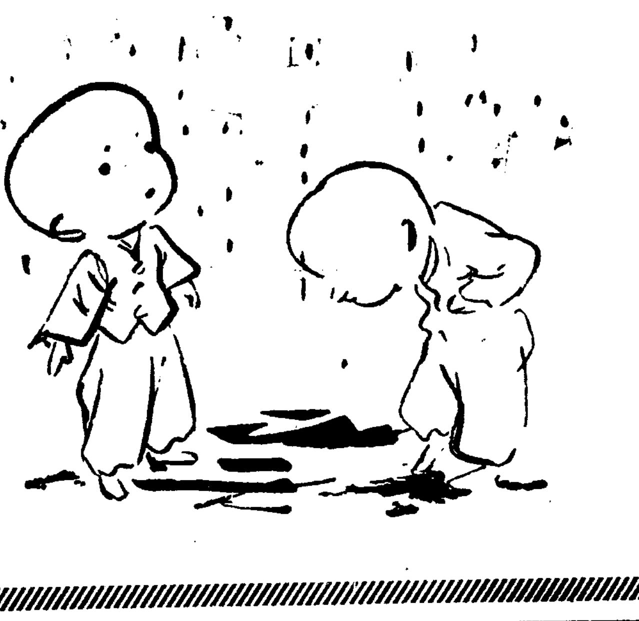
이만한것을생각만이라도 할수잇는주부는 훌륭한주부입니다 그어려울것은 하나도업습니다 그가 가보든책을 제자리에언고 그가 벗고간옷을 차근차근접어서치우며 방바닥이호홋하도록 불을넛코 말큼하게치워서 기분이조토록하면 그만입니다 더욱요사히 와가티 추운날에는 요를방아래목에 끼리두어서 회사에서 도라오자손을너흐면 따스할도록해주는것이 효과적입니다 남편을조종하는비법이라해서 신문이나 잡지의 징구진기자들이 대서특서하고 친구들끼리모히면 연구도해보는부인이 만흘것이나 그것은 다른게아니라 치운날은 더운방에서쉬게하고 더운날은선선한방에서쉬게하야 늘기분이새롭게하는게 비결입니다。

우리차지

녹앗네

아 녹앗네
참 분한데
왜
눈이 녹아서
분하다
편가르고
눈싸움하젯는데
녹앗지

(글쓴사람 차동렬)



찬바람을비웃는 한떨기 생화 ■■
엇던것은얼마식이나하나

겨울의 꽃이야기란 철에닷지 안는이야기입니다마는 겨울일사록 귀여운 생생한꽃을 그리워하여 여러분의친구나 친척의경사에도 꽃을선물하지 안흡니까 그것의수용을 만족시키기위하야 백만안도회지이면 의례히 생화(生花)재배를 전문으로하는 장사치가잇습니다

지금각백화점이나 생화전문점에는 아름다운꽃들이피여 잇습니다 한송이에 이삼십전을주어야살수잇것만 팔리기도 잘하며 만키노합니다。

생화의금년겨울시세와 경향을 살펴보면 년말까지에는 그다지 큰변동이업고다만 이삼할의꽃갑을떠리서 갑시비싸젓습니다 새해가되자 이꽃갑은 오르고 잇습니다。

이원인을 살펴보면 지나사변의영향을바더서 구근(球根)의재배가 잘되지안흔것과 연료의등귀가 원인입니다

원래가을과 겨울의생화란것은 대부분이 온실이나 억성재배(抑成栽培)로 난방장치를해야만 기르는것입니다

이러케 난방을하는 석탄이사변의영향을 바더서 놉납게 올렛스니 꽃장수들이 주판이맞지안허서 꽃재배를 그만두기만흔것과 재배를하더라도 빗싼석탄을 때엿다는것으로 꽃갑시 올러가는것입니다

중요한꽃의 갑을알아보면 카-네숀이 마흔가지에 사원이며 장미는 작년보다 훨신꽃갑이조흔데 마흔가지에이원오십전 스위트뻬-는 불길이적어서 두떨기에 일원삼우며 세떨기에 일원오십전 이원가는것이잇습니다

자주빗이 제일 만히팔리는것도 한가지 이상한 현상입니다

푸리-자는 좀처럼 구하기어렵도록 물건이귀합니다 지금구가지에 이원내외입니다 갈수잇는것은 히야신쓰이고 노트거나 자수빗은 아프로 얼마잇서야 나오겟다고합니다

수선화(水仙花)로는 황방수선(黃房水仙)이 인끼의중심이되여 잇습니다

그것은 한가지에 칠팔십전짜리도잇고 사오십전짜리도 잇습니다。백수선(白水仙)은 이백가지든지 한섭에 삼원짜우며 백합은 한꽃타리에 십팔전으로부터 이십전씩우입니다。

에리카같은것은 빗갈이 조흡니다 다섯다발에 일원오십전입니다

꽃가운데도 난초과(蘭草科)의것이 최고급인데 현재시장에나오것은 심오가 제일만고 한떨기에 십오전이며 덴드로븸이란것은 그전가트면 벌서 시장에나왓슬것이나 금년에는 보이지안습니다

안소리움은 흰것과 붉은것이 잇는데 한가지에 이십전입니다

생화라는 가게엘가면 그야말로때화같은한떨기 박갓에서는 살을여이는듯 찬바람이 붑니다

젓떼는애기에게 끄려서먹이는죽
그러나잘못끄려먹이면탈 분량과시간을잘마처야돼

어린아이는 난지 칠팔개월부터 느저도 구개월까지에는 암죽을 먹이도록하지안흐면 안됩니다 그러나 이죽은 암죽이니만치 자칫하면 체하기쉬우므로 그것을 만드는 법과 먹이는방법을 이야기 하겟습니다

암죽에는 밥을가지고짓는것과 가루를 가지고짓는것 두종류가 잇습니다

밥을 가지고 짓는것은 제일 경편하고 맛잇게 할수잇는것입니다。

고기국물가튼것에 밥을너허서 오래도록 쌀무면 됩니다。

또한 소곰으로 간을마추어도 상관업스며 입에너흐면 녹아나도록 살머야합니다。

가루로만드는 죽은 쌀가루로 만드는것입니다。

만드는 법은 전날밤에 가라두엇던 쌀을 쌀분량의 이십배쯤되는물에 개여서 붓고 이것을 솟테너허 저어가면서 오래도록 끄립니다。

죽이되거든 소금과 설탕을조금너허서 맛을 마추도록 하십시요。

다음에는 암죽을 먹이는법인데 밥죽은 매처음에 차사시로 한사시만 하로한번-오전중의젓먹일때의바로전에먹이고 이상일동안 그결과를 보아서 아모이상이업거던 한사시더먹여도조습니다

너무급히 굴지말고 열사시즘먹을때에는 이번은오후에도 먹이는것이 조흡니다 이럴때도 처음에는 한사시로부터 늘려올리가도록하야 나중에는 하로에세번식먹입니다

다음으로 가루로만든죽은 밥죽보다 조금묵하며먹여도 상관업습니다。이것도 젓먹이기직전에 최초에는 하나 둘 셋네사시로 차차올려서 하로에두번 십일개월이지나고 돌이각까워오거든 분량을 만히하야도조흡니다

그러나 한가지주의할것은 암죽을먹인다해서 젓을줄이면 필요는 조금도업습니다

이리하야 죽분량이 상당하만허섯다고 생각되거든 차차젓을 떼기시작하고 죽물도 야채물을 석도록하십시요。

치운날에즐길 색다른더운차

대한절후의 치위에는 어린이의 놀음이나 손님대접으로 내여노흘음식은 더웁고 맛잇는것이조흡니다。

다음에 이야기 하는것은 모다 간단한 재료로 만들수잇는것입니다。

빠나나밀크

재료—빠나나 한개 우유한홉 설탕과 더운물。

빠나나는 껍질을벗기고 상한곳은 비어버린다음 갈눈게 썰거나 생채치는기게에 가라서남비에 넣코 우유한홉을 부어서 뜨거운물을 부은다음 설탕으로 달게하야서 약한불로데웁니다。

달리 손님에게 내여놋는것은 혹신 색다른방법으로 게란한개를 깨트려 거품일도록하야 얄팍하게 끄려노흔 빠나나에발너주고 우유를 뜨거운물에 라면서 끄리고 설탕을넣코 끄부에빠나나를 너허서 더운밀크를부어먹습니다。

진자에-드

재료—생강 설탕 더운물、우유。

생강은 생채기게에 가려서써른다음 깨끗한 헌겁으로 짜서두고 끄부에 더운물을끄려서 설탕을타고 생강즙을 조곰부어서 먹는데 우유는 각각입맛대로 섞거먹습니다。

엿탕(飴湯)

재료-물엿 뜨거운물 엿탕은신체에조코 보온하는 것이므로기침하는노인이나 아이들 에게먹이면 조흡니다。

물엿을 두사시쯤 끄부에넣코뜨거운물을 부어서 잘저어먹습니다 간단하고 맛잇스며 몸에리로운것입니다。

中篇小說 女人命令 【24】

李善熙 作
崔根培 畵

別離 (十八)

이튼날 아츰 숙채가 그행낭방에서 눈을떳슬때 네모진 들창 끄스름이안흔 조희우로흐아중해벗 두어오리가 밝아캐 되려잇다。

숙채는 몸을 갓우어 일어날힘이업는듯이 멀거니 드러누은채 그해빗의 오리오리를 보앗다。

『오늘은 어제와 가튼날이아니다』

숙채는 오늘이란 오늘이 웨이리 심거운지모른다。유원이를 만날수업는 이날이 웨이리 빗갈이 허여케 바래뵈이는지 모른다。

『용연어머니-그이가 하든말은 저다 빼노치말고 이야기해보서요 인천 정말 더업서요? 어듸 표풀이 더생각해보면잇슬텐데……』

『글세-더생각이 나지안는군요 참 이런말은 한번하섯죠。인천에 혹친척이 잇느냐구요?』

『인천에 친척이잇느냐구요?』

『네-』

『인천?인천?』

숙채는 머리로 피가 갈작이 모히는거가텃다。

『그럼 인천으로 갓슬가?』

그러나 설사 인천으로 갓다처도 인천 어데로 갓는지 알터이업다。

인천이란 땅은 숙채가 삼년전에 학교에서 원족가는데 따라갓든 일밧게업는 극히 생소한 고장이다。

숙채는『가마니』를 산뎀이가티싸하노앗든 그부두에 구데기끌틋하는 날품파리 로동자의 떼를 기억한다。

『그가 혹 그런데나 가잇지안흘가?』

숙채는 당장 인천으로 나려가서 부두로 달려나갈려고생각햇다。

『올타 꽉거기에 갓슬것이다』

그러나 숙채가 벌덕이러나갈차비를하는동안 숙채의 모험심은 자즈러들고 말엇다。

한가지 생각을 꽉붓들고 실행하기는 모든 사세가 넘우꿈갓고 숙채가 넘우 어리기때문이다。

그러저럭 범심때나 되엿슬때 용연어머니의 끔직한 정성과권으로 밥을한술뜨고 숙채는 아주 그집을 하직하고 나와다。

『그럼 저녁차로 가서요?』

『더잇서야 소용업스니까 내려가야죠。그동안 혹시 자기집으로 갓는지도 모르고 또우리어머니가 몹씨 기다리실테니까요。그런데 내가갓다에라도 무슨 소식이잇거든 이주소로 곳좀알려주서요。』

『알기만하면야 여부잇나요。그러데 몃시차로 가서요?』

『세시차가 잇서요』

숙채는 전차도 타지안코 행하게 걸어서 남대문 역압지나 정거장으로 향햇다。

거름을 거르면서 속으론 집으로가는 차를 탈지 인천으로가는 차를 탈지 생각이오락가락해서 어느것을 정처야 바로 드러마즐지 몰랏다。

그러나 마음속엔 벌서 이러한 여러가지 계획보다 더큰실망이 누르고잇서 숙채의 자신업는 용기를 꺽것다。

마츰이때다 수구린 고개여프로 훠지나가는 사람이잇다。숙채는 가슴이 뜨끔한채 그냥맛거름 더것다가 뒤를 도라다보앗다。

숙채의 시선이 떠러지는 두어간되는곳에 웬점은 사내사람이 키다란 키에 짧은 휘두루막이를입고 찍찍 가는것이다。

숙채는 그뒷맵씨를 머니보다가 그것이 아모래도『유원』이와가튼 생각이 들어서 그냥그뒤로다 쪼처갓다。

그사내가 어찌 빨리것는지『하이힐』을 신은 숙채가 따라갈수가 업다。

『분명 유원이다』

그러나 멀건대낫에 행길에서 다름박질 할수도업고 그러라고 짹짹소리처 부를수도업고 숙채는 죽을힘을 다해서 따라갓다

그러나 도모지 부잡을수업다。

그리다가 그사내가 조선은행아페 이르럿슬때 잠간 여고로 머리를 돌리는것을보니 이건배판 딴사람이아니냐

『내가 미첫구나。그이는 두루막이를 입지안헛슬텐데……』

숙채는 제손에 든 적은 보따리를 보앗다。그속에는 유원이의 두루마이와 모자가 들어잇는것이다。

그런데 숙채는 작고 흰두루막이 입은 사람만 쪼처갓다。

사십오도 각도로 나가 잡바진 백화점 층층건물의 그림자가 사뭇『쵸코렛』향기를 뿜는다。숙채는 이러한도심을 고아와가티 걸엇다。

이옥고 정거장 아페 이르럿슬때 숙채는 거이 자기도모르게 사방을 휘-살펴보고 대합실에 드러가 한쪽걸상에 쪼그리고 안젓다。

그러나 숙채보다 한십분먼저 이정거장으로 나와 이등대합실쪽으로 간 사람이잇섯다。

マスタークリーム
마스타-바니싱크-림

潤澤하고 血色조흔 若肌를만드는

肌膚專門滋養藥

女性의 살결을속속드리 곱고 젊게하는 皮膚專門의滋養藥라세란이 科學의나라 獨逸에서發明되엿습니다

마스타-바니싱은 이것을應用한唯一의 크림이므로 살결에의 滲透力은 놀랄만치强해서 皮膚細胞의 新陳代謝를旺盛히하야 어떠한 추위에라도 살거침을 防止하는것은勿論 艶麗하고 血色조흔 若肌를 맨드러 아주 健康하게하고 어여뿌게합니다

●滲透力强해서살거침防止化粧下에第一!
●殺菌力强하고면도적에最適!

軍國調의初春 化粧의準備에

健康的이고 化粧한듯이보이잔는 自然대로의明朗한 때는化粧이야말로 戰捷의新年에어울리는 軍國調化粧입니다

마스타-바니싱의化粧下에 合하는의 新肌色을쓰신다면 獨特한 複合微粒子이므로 濃淡自由로발리여서 優雅한表情化粧이生生하게 오래갑니다

マスターパクト

고기도

文學靑年論
柏木兒

「文學靑年」이라면 흔히는 [..]의 代名詞로 안다。그래서 어떤때는 文靑이라고까지 한다。그러면 文學靑年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이點을 밝히려할때 모름지기 생각나는것은 中堅이니 大家니 하는 [..]하자면 一般的으로서의 文人이잇다。이러케 [..]할때 文人파文學靑年의 差異는 [..]히社會的地位로서 決定되는것이라고할수밧게업다。그러나 文人파 文靑을 단순히 社會的地位의 差異에서만 생각한다면 다른 모든社會的職所에 비겨볼때 一般的으로地位의 低下한사람이 반드시 [..]의 對象안되는데 反해서 文靑은 누구에게나 [..]의對象이 된다는것은 무슨까닭일까? 여기에는 반드시 文人파 文靑파의 [..]

[..]地位의 高下로[..] [..]것지는 [..]과 文學의 本質이아니라 좀 더根本的인理由的 一面으로서의 [..]가 숨어잇다는것을 생각하지 아니할수업는것이다。그런데 [..]가 서로 어울려서 一[..]의 [..]에 이르는것이다。세상에서 [..]을 찾는사람을보면 대개는 그 行動이 [..] 그래서 이러한 文學靑年의 行動은 往往히 세상에대한 [..]에맛는 [..]的인人 [..]에 버서나서 [..] 아모리 [..]하도 [..]的인 世人에게는 [..]의對象이되지 아니할수 어울것이다。그러니中堅이나大家가 文靑에比해서 [..]은귀녕 도리혀世人[..]의的이 될때가 잇다는것은 結局 文學을 [..]的이여서 [..]에 맛지안는사람[..]인데 靑年이란 본래 [..]의 對象으로만 생각하지 안는 때문이라고 할수잇겟지마는 그대신에 中堅이나 大家들이 世人에게서 [..]의 對象이될때가 업지안흔것은 무슨까닭일까?

가령 어는文人에게 關해서「그자식 재ㅡ니 건방지건」「아주 재가 제[..]」하는類의 世人의 [..]가잇는것을 우리는 흔히듯는수가잇다。이것은 무슨까닭일까? 이러한 [..]파는 달너서 어느[..]까지는 그사람의存在를 認定하는말이지마는 文學을하다는것이 한거름잘못하면 [..]의對象이되고 또한거름잘못하면 [..]의對象이된다는 [..]의길임에는 틀림업다。그럼으로 이러한 [..]의길을 압헤둔우리는 무엇보담도 한개의 [..]을 버리는것이제일 緊要한일이아닌가。다시말하면 中堅이니 大家니해서 뻐내기만 하고 文靑이라고해서 [..]와가튼 行動을 [..]하지안는다면 이것은 永遠히 救援바들 存在가되지못할것이다

獨學의最高典型
花潭徐敬德小傳
―그의遺蹟保存問題를機會로―
(上) 李殷相

最近 新聞紙上의 報道에 依하면 開城 徐花潭先生의 遺蹟地인 花谷書院을 無廢하게도 私有코저한 惡徒가잇서서 儒林有志들이 憤慨하야 그에對한 是非를 革正하고 아울러 그遺蹟保存에對한 輿論을 喚起하고잇다고 傳한다。

이問題를 機會로 나는 徐花潭이란이가 어떠한이인것을 말하고 또아울러 古[..]의 保存問題에對한 平日의 所懷를 叙하려는것이다。

○……○

朝鮮의 歷史上에 빗나는 一生을 남기고간이가 적지아니하되 그들은 學者가 華麗한門中에 태어나서 名師傅의 膝下에 修學하야 比較的 坦平한길을 밟을수잇는 幸福者들이엇던것이 事實이다。

멀리 三國高麗의 人物들은 그만두고 李朝에 잇서서는 社會制度와 相關하야 더욱 그러한 觀이 잇슴이 毋論이나、그中에도 종종 獨學의 大學者가 잇슴을 發見할때에 우리는 그의 生涯와및그學問앞에 한번더 敬意를 表하지안흘수업는것이다。

徐花潭은 實로 朝鮮史上 獨學의 最高典型이라 할만한 大獨學者이니 그의이름은 敬德이오 字는可久요、또달리 復齋라고도 號한이다。

그는 저儒學史上의 大人物인 退溪先生이 나기十二年前인 成宗二十年己酉(西紀一四八九)에나서 五十八年間 在世하다가 退溪가卒하기 二十四年前인 明宗元年丙午(西紀一五四六)에 卒한이다。

當時 學界에는 趙光祖、金安國、李彦迪、成守琛等 一世의碩學들이 혹은 그보다數年長、혹은十歲長으로 社會의敎師가되는 동안、그는 寒微한 農家에나서 無師獨學의 艱苦한길을 밟지안흐면 안될 不幸한 運命을 맛보것이다。

「나는 스승이 업서 艱苦하엿스나 後人은 내말에依하야可히 捷徑을어더 許多한 勞苦를 當하지안흘것이다」한 그의日語 한마디속에서 우리는 그의苦學史를 듯는것갓고、그의自負心을 보는듯하다。

또한 그의 述懷詩인
讀書當日志經綸
晩歲還甘顔氏貧
富貴有爭難下手
林泉無禁可安身
採山釣水堪充腹
詠月吟風足暢神
學到不疑知快闊
免敎虛作百年人
어린것에서도 그의 人生觀과 및그의自信自負의 心境을 엿볼수가 잇거니와 그는 實로 어려서부터 聰明하고 正直하며 好學하되 家貧無師하야 스스로實地에 窮合으로써 格物窮理의길 밧게 다른道理가 업섯다。

어려서 山野에나가 草蔬의新芽를 캐어다가 食糧을 補足하는 極貧의生活을하면서도 今日一寸、明日二寸으로 날기를 배우는 노고지리를 [..]히 보지안코 學問의進步도 저가티하겟다하엿다는 有名한 逸話에서 그의 窮理的天資와 出衆한 誠意를 볼수잇고 十四歲時에 近處[..]에가서 [..]을배우다가「朞三百」句節에 이르러 [..]가모르다하며 도學世가 이를 알지못한다하면서 그냥지나므로 몰러나와 스스로 窮究한지 十五日에 그理致를 自通하엿다는逸話에서도 그의研究性과 및天賦의才華를 짐작할것이다。

또한 十八歲以後부터 大學의「格物致知」를배운 하야 온갓事物의名目을 壁上에 써부치고 每日그한가지 事物에 對하야 窮理하되 그것을 通徹한後면 또다른事物의 名目을써부치고 그것을研究하야 六年間을 繼續하엿다는것이다。

남의糟粕을맛보고 남의所說을模倣하는것을 가장실혀하고 비록 古人의 한말이라도 그는 반듯이 自得的으로는 밋지아니하고 다른사람이 알엇노라 하는것도 반듯이 다 된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야 좀더 精深하게 硏究하려한것이 그의作攝이오 또그의態度엿다。그러므로 實際에서 [..]에게 말하되 「敬德의 著述[..]을 읽어보나 [..]修身一事에는 言及함이엽고 全然 [..]論하엿스니 이는 [..]所說에 [..]한것뿐이 [..]」되 「敬德의學術이 中國의 [..]에게서 나온바이나 그[..]에 治[..]하다한다면 그는 [..]의 알지못하는點이라하겟지마는 [..]思하고 [..]見하야 自得함이 만흐니 文字나 言語의學에 그치은 아니하겟나이다」한것을보면 果然 그의 精深正確한 學究的態度에 對하야는 疑心할것이 업겟다。

小文章
趨庭錄 (六)
너울의由來
袋山生

녯날에는 婦女가 出入하는데 蓋頭가 업더니 公이 新製를해들어 바치어서 지금까지 使用한다고 하고 新製란 아래世俗에서 羅兀이라고 하는 것이니 지금 婦女가 바게 나올때쓰는 것이라고 註를 달앗다。이것은 端宗의 殉節諸臣中 奇虔에 關한 事蹟으로 적히어잇는 것인데 公이란 곳奇虔을가르침이요 羅兀이란 곳 너울임으로 너울은 奇虔의 創製라는 말이다

그러나 唐初로부터 漢土에는 冪䍠니 帷帽니 하는 것이 잇섯다 新羅中葉에서 唐의 衣服을 輸入할즈적에 이冪䍠나 帷帽는 어째 輸入치를 안 하얏슬까。唐書車服志에『初婦人施冪䍠以蔽身。永徽中始用帷帽施裙及頸坐檐。以代乘車。』라고 하고 舊唐書輿服志에『武德貞觀之時。宮人騎馬者多著冪䍠。雖發自戎夷。而全身障蔽。不欲路人窺之』라고하얏다。여기서 冪䍠라는 것은곳 前에 말한 冪䍠로서 冪䍠나帷帽나 究竟 우리의 너울과 가튼 種類가아닌가。宋에 이르러 漢人들은 다시 이름을 고치어서 蓋頭라고 하얏스니 周煇의 淸波雜志에『婦女步通衢。以方幅紫羅。障面蔽半身。俗謂之蓋頭。蓋唐帷帽之制也』라고한것은 곳 그의淵源이다。동근레에 드리는 너울이方幅紫羅의 蓋頭와는 多少 다르다고보이지만 障面蔽半身하는 그 效用에 잇서서는 一毫도 틀리지를안는다。그러면 奇虔이 蓋頭를 본떠서 너울을 맨든것일까。何如튼 조선에는 奇虔以前에 업섯기때문으로 新製를 맨들엇다고 한것이 아니겟는가。

그러나 謏聞瑣錄에『吾東方士族婦女出外。皆以皂羅蒙面笠四圍下尺餘而蔽之。所以擁蔽其面。蓋唐冪䍠之遺制。或謂之蓋頭。而方言無正名。麗史鄭國儉云。一婦人盛飾著袈裟。袈裟夫人盛飾。以緇布爲之。所以蒙頭掩面者也。然指蓋頭爲袈裟似未安。』이라고하얏슨즉 鄭國儉의 말한 袈裟가 곳 蓋頭로서 高麗때도 蓋頭가 잇섯든 모냥이다。高麗때 이미蓋頭가잇섯다면 奇虔의創製라고는 말하기어렵거니와그러타고奇虔이 너울을맨들어 바친것까지를 터문이 업는 헛소리로 돌리지도 못할것이라 一時廢用된것을 그가다시通行사키자고 建議하얏든것으로 推測하는 것이 가장 穩當할듯 하다。그러니까 우리의 너울은 唐人의帷帽로부터 나온 것이 分明한데 唐의 帷帽는 또 그들의記錄을 보아서 所謂戎夷로부터 바더드린것이 疑心업는 일이다。이러케 따지어 가면 우리의 너울은 結局 波斯나 土耳其의 婦人네들이 覆面巾를 쓰는 習慣으로 더부러 멀리 關聯되는바가잇지 안할까고 생각되는바업지안타

海印寺紀行
第四信・海印寺에서
咸大勳

任兵事와의 時局關係의 一問一答으로 八萬大藏經板事件의 眞相을 大藏經板은 엇스나 未詳한 點도잇고하여 來客다시 來訪할것을 約束하고 任兵事와나와왓다

밤으로 紗窓[..]이 [..]影을 지우면서 고요히 [..] 大寂光殿의 [..]은 月色이 [..]하다

[..]僧堂의 [..]이 달빗에 잠겨고 寺院內는 [..] 大寂光殿의 [..] 온나그네의 거름은 自然히 [..] 그곳이 日光이래 고요히 울리는것은 [..]

大寂光殿압 빈뜰에 일즉이李朝成宗十九年己酉에 王大妃殿下께서 事祖大師를 命하야 重創케한 藏經閣을 同時改築하엿다는 三層石塔이 月色을맛고 무거운모양을 安寧하고잇다

自然히 [..] 빈뜰에 光을 [..]으며 한거름두거름 正門으로 나아왓다「月白雪白天地白 山深夜深客愁深」의 古語一句가 아지못하게 내입에서 스처갓다 달도밝거니와 山기슭에서 외로운나그네의 거름은 自然하게 [..] 어데서 개짓는소리 하나 [..]지안흐나 다만 伽倻山海印寺란 [..]의 [..]속에 [..]하게 보되고잇는 것이다。

◇

이海印寺는 伽倻山속에잇는것이라 伽倻寺라는 稱도 잇는것이지만 이는 山名과寺名을合한 略稱으로 海印이라한것은本是 佛說法華經中에 海印三昧라는 大定의이름에서 나온것이라 한다 大定中에는 세가지世間(器世間、家生世間、智正覺世間)이 顯現하는것이 마치天地森羅萬像이 바다ㅅ속에 現顯되는것과갓다하야 華嚴經의 所依三昧의名을 海印이라한것이라 하엿다하거니와 元來 이것은 華嚴宗祖 義湘大師의法孫 順應大德의 開創以來 華嚴宗의 根本道場이된것으로 順應大德의 開山은 바로 新羅第四十代哀莊王三年壬午十月이니只今으로부터一千一百三十七年前에된것이다。六次나重創再修하엿다하거니와 純祖十七年丁丑에火災로 燒失된것을 越三年 庚辰에 化主雪月師가 影月師와 應雲師와 가티 重創한것이 現存한 巨刹이라한다。現存建物은 大寂光殿을 비롯하여 板殿、寂府殿、應眞殿、九光殿、講經堂、窮玄堂、四聖堂、明月堂、堆雪堂、願業殿等이 잇고 이밖게 九個의庵坐가잇다。

◇

大寂光殿前의 廣庭한 月色을 뒤로두고 비탈길을 더드머 旅舍로 도라오니 빈방에는 람포 불이 고요히 조을고잇다。

釜山에잇다는분이 마침가든宿舍에서 묵게되여 하로ㅅ밤 話題의동무가 될가햇스나 結局우리는 話題貧困으로 그대로 누어 잠들고마럿다。

山寺의밤은 내게 어즈러운꿈도업시 고요히 잘도려주엇다。더구나 그前날 大邱서 午前二時까지의 痛飮이 이맑고 고요한 山寺旅宿에 묵은 나를 더 포근히 잘들게해주엇다

◇

翌朝七時起床!山속의맑은空氣에 새稱呼吸을 가다듬고 東天을向해 深呼吸을하고는 냉수치고、山菜가득한 아츰床을 對햇다 珍珠에 香味를 둘리며 食事를 끝내고 이곤는 다시任持를 찾엇다。爲先 本殿을 求景하고 問題의經板이盜難되엿다는 八萬藏經閣을 보기로하엿다。

그러나 本殿을 구경하고나니 八萬大藏經閣의 열쇠는 그곳警官 出張所에 保管햇다하여 案內하든 僧侶가 다시그쇠를차즈러나려갓다。나는 다사론볕아레 大寂光殿을 바라보며 그가오기를기다리고잇슬수밧게업섯다

處處神佛功德
家生有苦憂除滅
佛身普放大光明
光相所照咸歡喜
色相無邊極淸淨
如雲充滿一切生

이란 木刻으로된板이 大寂光殿에걸려잇서 佛敎의眞意를說明하고잇다 나는그걸멀거니 바라보며 한五分이나 그가오기를 기다리고잇스나 그는 그대로오지를 안는다 볕이점점따스하게 내外套에 포근히 안긴다。

灘爐漫語
나의日記 ②
朴泰遠

日記란 끈끈이잇게 오래 繼續하여야 貴하고 書信이란 때에 늦지안케 써내야만緊하다고ㅡ누가 그러케 말한것을 들은법하다。올흔말이다。書信이나 日記나 무어 文學作品이 아닌以上 그 內容이나 表現이나에 藝術的價値란든 그러한것이 論議될필요이업다。

×

내가 日記란것을 처음으로 始作한것은 아모래도 普通學校 三年적부터인가 한다。그때의나는 只今의 나보다 얼마쯤은 끈끈이가 잇섯든듯십다。그야 亦是 가다가다 몃일式 걸르는 일이 잇기는잇섯다。그래도 어떠케 이래저래 한三年이나 繼續하엿섯든것 갓다。

그러나 中學二年이 되여서부터가 問題다。어느때、그러지안허도 가뜩이나『젠척』하려드는 仇甫少年을 보고、사람이 조흔 英語敎師가、

『泰遠인 語學에 매우 재주가 잇서』

어떠케 그러한 無責任한 말을 불숙한것이 이를테면 탈이다。그말에 적지아니 느낀바가 잇섯든 仇甫는、

『이것은 이럴것이 아니다』

그처럼이나 自他가 共認하는 英語의 實力을 發揮하기 爲하여 爲先 그날까지 鮮漢文으로하여오든 日記를 斷然 英語로記述하기로 決心하여버렷다。

그러케 作定한뒤부터 日記를 草하기 爲하여 좀더 만흔 時間과 努力이 必要하게되엿다。

『멧時 起床 멧時 登校 放課後 庭球 멧時 歸家 入浴 夕飯後 本町行 新靑年 멧月號를 삼。……』

日記는 簡略한것이 조흐리라 하여 전혀 이러한類의『씌울셈』하엿든것이나 그래도 때때로는 『센쓰』를 愛用하기로 方針을定하엿든것이나 英語와 和英辭典이라든 그러한것을 뒤져 어리지 안흐면 안되엿고 그러케까지 하여도 事件이라는것이 원악이 [..]하여 作文이 容易하지 안흔 [..]에는 便宜上 더러 事實을「改作」하기조차 하엿다。

그러나 勿論 그것은 내自身의 마음에도 愉快한 일일수는 업섯스므로 한 달포나 그밖게 더 지나지 못하여 이내 日記를 [..]하기를 斷念하고 아주 그것에 一年의 折半도 使用하지 안흔 그 日記帳은 나는그대로 冊床구석에 기간 수하여버리고 말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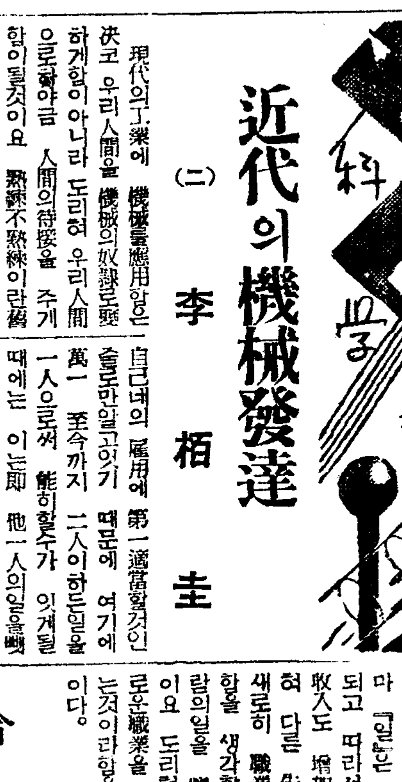
×

그러나 問題는 오히려 그 뒤에 가서 좀더 커젓다 하겟다。數三篇의 雜文類와 詩歌小品을 어떠케 어떠케 新聞紙上에 發表할수 잇섯든 그後의 仇甫는 大體 남이 야알이수거나 말거나 이미 一個文人으로서의 驕氣와 自負心이 大端한것이 잇서 무릇 내손으로 된것이면 斷簡零墨이라도 必然코 後世에 남을것 가티 錯覺하고 假令 日後에『日記及斷片』이의 一卷이 잇는시 나도 내自身、後年에 當然히 가질 全集中에 亦是 그러한 한卷을 準備하려하엿다。仇甫全集 編輯委員들은 應當 매우 勞苦도움이 적을것이다。나는 한卷의 大學노오트를 사다가 그 겻장에다 아수『日記及斷片』이라 쓰고 날마다 매우 바빳다。

반듯이 남이 읽을것을 豫期하고 씨여진 中學四年生의『日記』에는 眞實보다 虛僞가 勿論 만헛고 假令 어느때 胡餠을 한個 사먹는일이 잇드라도 『仇甫先生이 年少하섯슬때 호떡을 조하하섯다드군。』後世에 能히 한個의『逸話』일 수 잇도록 모든點을 考慮하여 印象깁게 記述할것을 잇지 안헛다。

그것은 아마 一年以上이나『꾸준히』繼續되엿든것갓다 그러나 뒤에 다시한번 뒤져어려 그로록이나한 不純한 稚氣와 自己欺瞞에 스스로 嫌惡를 禁치못한 나는 마치내 나의全集中의『日記及斷片』의一卷을 永久히 불살러버리고 말엇다。

以來八九年間ㅡ나는 日記란할 日記를쓰지 안헛다。



近代의機械發達 (二)
李栢圭

現代의工業에 機械를應用하는 所以는 우리人間을 機械의奴隸로 變하게하는것이 아니라 도리혀 우리人間으로하여금 人間의待接을 주게할이될것이요 熟練不熟練이란辨別은 업서지고 至今은 오직 責任性과 無責任性이란것만의 區別을 주게된것이다 이世上의 大部分을 볼진대 多年 一種의職을가지고잇다 即 現今社會의 자기가 가지고잇는것만이 自己의 일인줄로만 生覺하고 달리는 업스며 그런中에도 그일이恰似히 自己네의 雇用에 第一適當할것인줄로만알고잇기 때문에 여기에 萬一 至今까지 二人이하든일을 一人으로써 能히할수가 잇게될 때에는 이는即 他一人의일을빼는다고 生覺하엿든것이다 이思想은實로 上記의英國을 비롯하야 各國에잇서서 一大騷動을惹成케한것이다

事實에잇서『타이프라이터』가 發明케됨에따라서 勿論 어떠한職業的書記의일을 빼기는하엿다 그러나 이機械로 因하야 前에업든 [..] 그機械의 急速한 發達은 增加、開拓으로 因하야 多數의 勞働者는 그機械의 諸般運轉에關한 새로운 다른여러가지의 新職業을 엇게될것이며 따러서 그機械의 製造도 또한 一個의主要한 工業으로될것이다 如斯히 新機械의 採用으로 말미아마『일은』적신 적신 增加케되고 따러서 勞働者의數 또는 收入도 增加케될뿐아니라 도로혀 다른 失業勞働者에게까지도 새로히 職業을 주게되는것이라 함을 생각할때에는 機械는 사람의일을 뺏는다고는말할것이요 도리혀 새로운職業을 만흔勞働者에게 주는것이라함을 可히알수가잇슬것이다。

新刊紹介

◆少年 二月號(內容)特別讀物=世界人形展覽會 少年芸術大會 少年童話讀本 讀物=귀여운집 合唱劇 長篇冒險少年小說=白假面 其他 探偵冒險長篇小說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朝鮮日報社出版部 振替京城五八七六番 定價十錢 送料一錢

◆朝光 二月號(內容)支那風俗特輯 南京陷落과蔣介石政權 書 리간名選手時代=黃乙秀外諸氏 나의移徙苦難記=李寶永外諸氏 나의理想的女性타입=林和外諸氏 歐米見聞記=尹日善 新聞小說分化論 連載探偵 號외告白 二月의詩歌=바다外數篇 二月의創作 短篇小說=朝光 蓄池鐵外數篇 特別附錄=朝光라입스 等其他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朝鮮日報社出版部 振替京城五八七六番 定價四十錢 送料本社負擔

◆朝鮮農會斡旋通報 第一〇一號 (月二回)發行所 京城府黃金町二丁目 朝鮮農會斡旋部 振替京城三〇三番 定價一部六錢

新春一等當選小說
남생이 (十)
玄德 作
洪祐伯 畵

「영물의 즘생이라、사람의 일은 모르는것세」

이번에는 노마아버지 자신이 무심중 영이할머니의 말을 입에 옴기여본다。

이튼날 영이할머니는 부적을 마련가지고와서 내노치를 못하고 망서리는데 의외로 노마아버지는 두손으로 밧다시피하야 대견하엿다。까닭에 그는 부적한장을 구하는데 은전 한니괴 드는것과 매일 한장씩을 써야한다는 말을 쉬웁게 할수잇섯다。그러나 노마아버지는 불에 태워서 그재만 정한수에 타서 먹으라는 부럭을(이것이 또한영이 할머니에게 하는 단한가지 곳집이리라)마즈편 바람벽에 부처 노코 바라보는것이다。

남생이가 생긴후 아버지는 노마에게 범연해젓다。한종일 눈에 아니보여도 불으지안햇다。노마는 제세상을 맛낫다。아버지는 할머니가 서창에서 쓰러온 흙에 섞인 나락을 고른다。그 아래서 노마는 혼자말받치기를 한다。걸바닥에 금을 긋고 필수잇는대로 손을조고리 소매속으로 너홀러니까 팔목지를 새새끼 처럼하고 깡충깡충뛰며 풍당친다。

『오랑 이란』

『걸럿다』

노마는 꼿질 일인이역을한다。한편은노마、또한편 영이다。되도록 저편의공을 울이라고、걸르는때는 전부영이쪽으로 팔는다。그러나 영이는 대처도 안흔다。여전이 저할일만한다。키에담어 두손으로 비비여 흙을 가루가 되게한후 바람에 날린다。다음 모래와 나락이 남은데서 모래를 골러내는것이 아니고、모래층에서 나락알을 골라내는거다。손에 용어질을 감어쥐고 모래위를 눌렀다 떼면누룬듯 나락알만이 부러오른다。

[..]지가 실혀서 그러는것이 아니라、남생이가 무서워 피하는것이니까 노마는 한층일 박게나가 놀랏도 구실이 되엿다。먼저 영이에게 까치거름으로 뛰여가 을마든지 놀려도 조흔 몸얼을 자랑한다。참을입 양기쩍에 안저서 영이 그것을 동구미에 헐며 영이는 농청맛게 웃더니

『너이 어머닌……그러다지』

『뭐』

다러날 준비로 담모퉁이에 부터서서 고개만 내노코 영이는 해해거리며 또

『너이 어머닌 그러다지』

그리고 담 저쪽 모퉁이로 다러나 아웅거린다。노마는 바지 귀칭을 움켜쥐고 머리를 저며 쪼차간다。쪼기며 쪼츠며 네모번듯한 영이집 돌레를두고 맴을 돈다。거진거진 자필듯해서 영이는 숨이 턱에차『아니다 아니다』굴뚝구석에 머리를 바고 오그린다。노마는 양억개를 찌그러뜨리며

『이래두。이래두』

『안그럴게。안그럴게』

그러나 영이는 몃거름 물러서 머리카락을 다듬어 올리며 정색을한다。

『너 바아지가 그러는데 너이 어머닌 다라난데』

『거짓뿌렁』

『정말이다 너ㅣ너이 아버진 알키만하구 버리두 못하구하니까』

『그럼 조치 뭐 쪼차다니며 나두 구경하구』

『누가 다려나는 사람이 널 다리구가니 애 쉬란』

『그럼 어머니 혼자』

『아니래、너럴보하구래』

『거짓부렁마린』

『정말이다。넌』

『거짓부령야』

『정말이다 넌』

『거짓부령 거짓부렁』

여예 고무래자루를 집어들고 닥어슨다。그 얼굴에 장난이 아닌 정색을보자 영이는 겁이난다。

『그래 아니다。아니다。』

今春各學校入學案內 (四)
(詳細는該校에直接問議하시요)

大邱公立高等普通學校
一、募集人員 約百名
一、申請期日 自二月一日至二月十五日
一、試驗日字 三月十二日부터
一、試驗場所 同校
一、試驗科目 國語 算術

公州公立高等普通學校
一、募集人員 約百名
一、申請期日 自二月一日至二月十五日
一、試驗日字 三月十二日부터
一、試驗場所 同校
一、試驗科目 國語 算術

全州公立高等普通學校
一、募集人員 約百名
一、申請期日 自二月一日至二月十五日
一、試驗日字 三月十二日부터
一、試驗場所 同校
一、試驗科目 國語 算術

裡里公立農林學校
一、募集人員 約百五十名
一、申請期日 自二月一日至二月二十日
一、試驗日字 三月七日부터五日間
一、試驗場所 同校
一、試驗科目 國語 算術

全州公立農業學校
一、募集人員 約五十名
一、申請期日 二月末日까지
一、試驗日字 自二月十四日至三月十七日
一、試驗場所 同校
一、試驗科目 朝鮮語、算術、理科、國史、地理、國語

安州公立高等普通學校
一、募集人員 約百名
一、申請期日 自二月一日至二月十五日
一、試驗日字 三月十二日부터
一、試驗場所 同校
一、試驗科目 國語、算術

新義州公立高等普通學校
一、募集人員 約百名
一、申請期日 自二月一日至二月十五日
一、試驗日字 三月十二日부터
一、試驗場所 同校
一、試驗科目 國語、算術

春川公立高等普通學校
一、募集人員 約百名
一、申請期日 自二月一日至二月十五日
一、試驗日字 三月十二日부터
一、試驗場所 同校
一、試驗科目 國語、算術

咸興公立高等普通學校
一、募集人員 約百名
一、申請期日 自二月一日至二月十五日
一、試驗日字 三月十二日
一、試驗場所 同校
一、試驗科目 國語 算術

重態인百日咳로 衰弱한애도튼튼히
名古屋 澤村信

(前略)今年十二歲되는 長女 二歲時에 重한百日咳로 苦生을하야 기침을하기始作하면 대단히 苦痛을하고 呼吸이 끈어질지경으로서 보고잇는 小生도 살을 어이는것보다도 더 애처러운생각(中略)七十餘日이나되는 長時日동안에야 快癒가되엿지마는 아해는 대단히 衰弱하야 그後는 滋養이될것만 먹엿사오나 생각한바와가티 살도안찌고 가을바람이 설넝거리면 每年감기를걸리고 그때마다 지독한기침을連續하고(中略)살을 깍가내는듯이 여위고 衰弱하야 애처러워서 참아볼수가업고 父母로서 어떠케던지 이苦痛을永久히 업새주려고(中略)어떤사람의게서 胃腸이 튼튼하면 [..]抵抗力도 强하게되며 감기도 안걸닌다는말을듯고(中略)新聞紙上으로서『錠劑わかもと』의効果를읽고 [..]服用시켜보앗스면 조켓다고하나 小生은 [..] 너무 誇大한것을 疑心하고(中略)작구만 걸리는 感氣에 또 內子의 懇望으로 昨冬부터 비로소 쓰기 始作하엿습니다。그 겨울을 感氣에는 한번도 안걸리고(中略)그後 繼續하야 每日 朝夕은 잇지안토록하고 낫에는 學校에서 먹도록하여 지금은 八歲、五歲、二歲의 아해들이 長女가 藥을먹는것을보고 서로먹고시퍼 하므로 그때마다 二三粒을주엇든바 習慣이되고 지금은 튼튼히 通學하고잇는대『錠劑わかもと』의 德澤이라고 기뻐하는바이오며 右에 拙筆로 謝禮하나이다

家庭医学

糖分의過剩은 虛弱體質을만든다
그것을防止하는榮養上의注意

단것을너무먹으면 虫齒가된다는것은 예전부터 傳하는말인데 그것은體內에 必要以上의 糖分이 드러가면 血液中에 游離한 有機酸이되야 이것이 칼슘、마구네슘、나트리윰等의 無機鹽類와
=綜合= 하고無剩酸性中性鹽이되여서 體外로 排泄되고 아지도지ー스라는 狀態를이르키는것으로서 即 齒牙의 榮養이되는 鑛物質이 過剩糖分에 빼앗기는까닭입니다。
게다가 이害는單純히齒牙만나뿌게할뿐아니라、如斯한 無機鹽類는 淋巴腺의 機能을維持하는대나 骨格과 組織을만드는대도 반드시必要한것으로서 이것이缺乏하면 腺과 組織과 骨格이弱해져서 所謂腺病質、虛弱體質을만들게되는것입니다
이와가티糖分의過剩은 警戒하지아느면 안되나 그러나또糖分은 가장重要한 에네루기ー의資源으로서活動이旺盛한 發育期에잇는兒童은 이것이不足하게되는것을
=警戒= 하지안흐면안되는故로 菓子等은 [..]食後에 먹는것은 삼갈일이지 [..]히補給하면 糖分의不足을 [..]마는 그와同時에 糖分을에네루기ー로서 利用키爲하야 비타민B를補給하고 無機鹽類를 充分히 [..]할念慮도업고 過剩의害도防止할수가잇습니다。
비타민B는 糖分代謝에必要한것으로서 不可缺의 要素입니다만 이것의[..]으로서는 米의胚芽와 酵母가 조흔데 最近에는 에ー뷔타리고하는 [..]中에 가장만히 含有되어잇는것이 [..]되엿습니다。
有名한「錠劑わかもと」는 에ー뷔酵母로만든 優秀한生物學的[..]
=藥用= 으로서가장 [..]하고 이에비타민B뿐아니라 [..]의 無機鹽類、其他의貴重한成分을 配合해서 製劑한製法特許의藥입니다
特히「錠劑わかもと」의 特長으로하는바는 體組織을 强하게하고 全身의 機能을 活潑케하는「細胞原形質賦活作用」으로서 抵抗力、[..]을 顯著히 强케하는 效果가잇스므로 一般으로 病弱者 發育不全한 小兒等이써서 體質을 强케하고 健全한 發育을 助長할수가 잇습니다

아십니까?
感冒의有効한豫防法
추위가感氣걸리는原因은안이다

漸次感冒季節이되엿습니다 지금까지는 感氣는추우니까 걸리는것 이것을豫防함에는 마스크를하던지 옷을두껍게입고 暖房裝置를하던지 門을꼭닷더노튼지 하야所謂

찬바람을마으면

조흔것처럼생각하는분이적지안습니다、그러나이것은잘못된생각으로서 感冒의原因은찬바람이아니고病菌의感染이며、病菌보다도 오히려더무서운것은抵抗力의減弱입니다 即 寒氣에거처진粘膜에病菌이感染하고、이것이肉體의抵抗力이衰弱한틈을타서 活動하는것으로서、아모리바람이칠지라도病菌이感染할지라도、肉體의抵抗力이旺盛하면感冒에걸릴理가업습니다

抵抗力은一國의國防力에도比할만한것으로서 이것을强力으로保全하기爲하여서는 [..]라고도할만한

體內의榮養을充實

케하지안흐면안됩니다 即抵抗力維持의要件은 榮養이 充實해서 全身의機能이 活潑히、規則的게 運行하고잇는것이 第一입니다 感冒豫防의 有效한方法으로서 이러케함에는 될수잇는대로 食物을자주적어먹고 外氣를쏘이고 朝夕으로 양치질을勵行할것、[..]皮膚를鍛鍊할것等으로서 日常胃腸이弱한분은 複合에ー뷔酵素劑『錠劑わかもと』의服用이 大端히効果的입니다
『錠劑わかもと』는特殊한成分을가진 微生物을

特許方法으로

製劑한 活性劑로서 그中에는 食物의 消化吸收를 促進하는活性酵素와 호르몬等外에 人體의組織을 기르고 粘膜을 튼튼케하는 아미노酸 에네루기ー와熱源이되는 구리고ー겡、脂肪酸、비타민B、또病菌을 退治하는抗體類를 體內에增加시키는 無機鹽類와 비타민A、D等의 貴重한成分을 綜合的으로 含有해잇는故로 이것을 常用하면 胃腸의機能을 旺盛活潑케 保全해서粘膜의 抵抗力을 强하게하고 病菌에지지안는 튼튼한 體質을만들수가잇는것입니다
『錠劑わかもと』는 東京芝公園大門內側、わかもと本舖榮養과育兒の會(振替東京一七〇〇番)에서 三百錠入一圓六十錢이라는 一日分 겨우五、六錢(小兒에는 一、二錢)의 廉價로 發賣하고잇습니다

0[..]477

娛樂

本報讀者優待의 中央舞臺 第五回大公演

來二十一日부터三日間 市內府民館에서

中央舞臺는 第五回公演을 本社學藝部後援으로 오는 一月二十一日부터 三日間市內府民館에서 열게되엿다

이번公演의 레퍼토리는 메텔링크의 『파랑새』全五幕九場으로서 五十餘名의 出演으로 稀有의스펙타클을 보이고잇다。

이公演은 中央舞臺가 그自體의力量과 進路를 밝히는 同時에 試練期를 떠나서 本格的으로 生長하는 契機를 지으라는 것이므로 그規模의큰것과 力量과熱의集中이 이번公演으로하야금 새水準우에 올려노코야말것으로보인다。

特히 脚本은 在來에 보지못하던 童劇으로서 多分의幻想的인要素를 가지고잇스므로 演出과舞臺裝置에 許多한困難이잇섯스나 이것을거이完璧에 갓갑도록 成就시키고 오래前부터充分한練習을 쌋코잇다。

每夜七時부터 幕이열리며 一月二十一日을 除한二十二日二十三日兩日間은 마치네가잇는데낫은午後一時부터이며 會費는五十錢均一이요 本報讀者에 限하야는 이것을 三十錢으로 割引하게되엿다

더욱『파랑새』의 配役은다음과갓다

메-텔링크作 『파랑새』全五幕九場 配役表

틸틸 南宮仙 / 미틸 朴貞淑 / 개 孟晩植 / 고양이 李白姬 / 砂糖 太乙民 / 光彩 金貞淑 / 불 金□滿 / 물 閔素麗 / 빵 徐成大 / 妖姿 金愛順 / 아버지 朴商翊 / 어머니 林榮鎭

夜 病 祖父 祖母 명A B G D 幽靈A B G D 꽝소 암소 狼 도야지 말 토끼 숫닭 참나무 橡 栗 白楊木 山毛欅 菩提樹 樅 扁柏 鷹 時

金□□ 金商□ 林榮□ 李福根 鄭錦順 尹金順 曺昌成 金□鎭 李三圭 鄭相一 朴□植 文□□ 申寶均 金秉榮 李載德 朴商翊 金玉 鄭龍瑞 徐月影 秋星 金瀛 崔錦錫 嚴昌煥 李一秀 金相德 金信基 鄭景俊 徐月影

파란아해多數其他群衆多數

다 이作品은 지금은 아즉 題目이 決定되지안엇스나 朝鮮移民生活을 主題로하고 支那語를 비롯하야 여러國語版으로 製作—이것을 三映社나 東京의 自由映畵配給聯盟의손을거처 世界에 配給되리라하며 演技者는 新人을 쓰기로되여서 스타프가決定되는대로 곳크랭크가도리라한다 그리하야今年末頃에나 製作이끗날것으로 結果는 대단히期待된다

滿洲를舞臺로 大作을計畫中

高麗映畵社가主體되여 新春映畵界朗報!

朝鮮映畵界에 새로운話題하나—市內鍾路二丁目에 잇는高麗映畵社가 主體가 되여서 그곳의 李創用氏와 今番上海에서 도라온 全昌根氏가 손을잡고 아즉朝鮮에서 보지못한大規模의 製作스타프로 大作을만든다는것이다。

이計畫은 昨年十一月頃부터 오래동안 上海滯在에서 活動하던 全昌根氏가 도라오자곳李氏와의 사이에 同意가되엿든것인데 十一月부터 全昌根 李創用 李明雨三氏가 咸北會寧等地와 古茂山等地의移民村에서 그들의生活을 研究해가면서 오리지날씨나리오의 執筆과 撮影條件을 實地로研究하는一方 東京方面의 技術的타이엎을 進行시킨것이다

이리하야 移民村에서 執筆中인 씨나리오는 거이完成되엿스므로 今十八日밤車로 李明雨氏는 여기대한 技術方面의 研究次로 東京을건너가게되엿스며 이것이 끗나면三月初旬부터 撮影이 始作되리라한다。

現在東京方面에서는 이朝鮮映畵의 劃時期的計畫을 援助해주겟다고 松竹의 洋畵部長千葉吉造氏와 日活多摩川撮影所長根岸氏 岩崎昶氏等이 몃번이나 李氏에게 援護를 申込해왓스나 資金은 지금形便으로 三萬圓와、現金이準備되여잇스므로 지금새삼스러히提携할必要가업서서모다 拒絕하고말엇다。

그러나 技術的으로는엇지할수업서서 이것만은 高麗映畵社의 獨自的으로 될수업스므로 日活이나 松竹이드라도條件이 조흔대로 決定하라고 近近 李創用氏가 渡東하리라한다

洋畵輸入制限은 어떠케될것인가

質的嚴選하는同時에 一年百本의輸入制限?

겨우 六月까지 封切할 스토크밧게 가지지못한 洋畵界에서는 死活問題라고해서 關係官廳에 그緩和方針을 여러가지로 陳情도하고 관계에게同情을求하기도하엿는데、當局으로서도 洋畵輸入을 全然禁止할意向은 업는것갓기도하기는하나 그러타고해서 自由輸入을 復活시킨다는것은 생각지도못할일임으로 結局은 어느制限미테서 輸入許可를하리라고 보고잇다 그方法으로는獨逸의 쿼ー타、시스템을 參考해서 一年間에 百本의 洋畵를 限하고 輸入을 許하는同時에 다시 一年을 四期로논하서 每一期마다 二十五本의 洋畵를 公開시킬作定이아닌가고 觀測되는데 昨年까지는 一年間에 三百餘本의 外畵가 入荷된데 比較하면 三分의一로 減少한모양이나 그러케되면 各社는 모두 質的으로 嚴選을行해서 一流作品만을 輸入하는것이아닐까한다

生長과 死滅이 無常한 朝鮮의 劇界에 한개의 새劇團이생겨낫다。

오래동안 映畵界에서 活動하얏스며 近日『靑春部隊』라는映畵를 만드러낸 尹逢春君을 中心으로 市內武橋町三二番地에다가 朝鮮興藝社라는 看板을걸고 여기에서 ＨＹ映畵製作所와 劇團 花郞苑이란것을 創立시켯는데 그들의 멤버-를 살펴보면 人生劇場의 朴齊行을 爲始하야 金蓮實 姜石齊等 昔日의 人氣者들이 석겨잇고 洪開明 尹逢春等의 映畵人이 리-드하고잇는것이 눈에띄여난다。

花郞苑의 創立公演은 二月十六日부터 三日間 府民館에서여는데 레퍼토리는『阿Q正傳』과『琴香哀史』라하며 劇團의部署는 다음과갓다

總指揮 林影 / 企業部 全宇 全章 / 演出部 洪開明 / 舞臺監督 尹逢春 / 文藝部 金健 裝置李順吉 演技部朴齊行 金蓮實 李素然 姜石齊 尹星畝 金好部 是 柳玄 黃銀順 池章夢

(사진은 創立人事次 本社를차저온花郞苑)

演劇、映畵人들이모혀 新劇團『花郞苑』設立

初公演은市內府民館에서 二月十六、十七、十八三日間

라듸오

十九日(水曜)

午後六時例의 올리파獨唱1、메뉴엣트 복케리니作曲 2、세레나-데 비제-作曲 李相鎬 伴奏 白崇一 / 二、獨唱 1、빨간총의파란총의 2、동모생각 3、자장가 朴恩奉 伴奏 白華蕾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〇分 復習時間 算術 (三) 崔昶元

◇同七時四〇分 講演『雅樂에對하야』李王職雅樂師長 咸和鎭

◇同八時一〇分 歌謠曲 一、漢陽千里(黃)二、女人哀歌(安)三、알들한당신(黃)四、마음의地平線(安)五、마음의湖口(黃)六、有情十年(安)七、저도몰나요(黃) 黃琴心 安玉鏡 伴奏·빅터—管絃團

◇同八時四〇分 一、旌山歌 二、小春香歌 三、달거리 李飛鳳 張彩瑛

◇同九時 唱劇調 一、短歌 二、唱劇調 春香傳中獄中歌 鼓手 丁元燮 朴綠珠

第一放送

◇午後六時 (大)兒童劇

◇同六時二五分 (東)支那語

◇同七時三〇分 (東)浪花節

◇同七時四〇分 (東)講演

◇同八時 (秋)俚謠

◇同八時二〇分 (大)社會面

◇同八時四〇分 (東)三曲

◇同九時 (東)講談

二十日(木曜)

◇午後零時五分 映畵이야기〃꼿은핀다〃 李愚興

◇同六時 兒童劇〃山村아이들〃 白羊會 作과指導 洪銀杓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〇分 經典解說 禪父 盧基南

◇同七時四〇分 講演『抗日支那의動向』朝鮮日報 韓 善容

◇同八時一〇分 京畿歌謠 一、遊山歌 二、긴아리 三、앞山打鈴 四、뒤山打鈴 五、박아타령 張鶴仙 金秋月

◇同八時三五分(東)和洋合奏一、唄『末廣가리』 近藤信一編曲 二、描寫曲『여우의시집』倉田榮吉作曲 三、舊想曲『春東名勝』齊藤一郎作曲 指揮 富士浮線管樂團 近藤信一

◇同九時 라듸오小說『사랑손님과어머니』朱耀燮作 朗讀 沈影 效果 李 寂 玄

第一放送

◇午後〇時五分 (東)俗曲

◇同六時 (東)이야기와노래

◇同六時二五分 (東)講演

◇同七時三〇分 (東)謠歌

◇同七時四〇分 (大)義太夫

◇同八時 (未定)

◇同八時三五分 (東)和洋合奏

◇同九時 (東)講談

二十一日(金曜)

◇午前一〇時三〇分 料理製法

◇午後〇時五分 京畿立唱 一、놀량 二、앞山打鈴 三、뒤산打鈴 四、개고리打鈴 五、도라지打鈴 六、자진방아타령 李□□ 李□□ 蘇完□ 李命□ 吉□□

◇同一時一五分 趣味講演『珍籍奇書이야기』盧子泳

◇同六時 라듸오學校『地圖는어떠케그리는가』宋基柱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〇分 復習時間 國語 (三)

◇同七時四〇分 獨唱 一、念佛이지의노래 그리—그作曲 二、牧童아 월달리作曲 三、자장歌 크라이슬러作曲 四、아베마리아 릇지作曲 五、歌劇『삼손과데릴라』中에서 상상스作曲 咸淵默

◇同八時 古談 譏者爲罪 朴慶姬

◇同八時三〇分 音律 靈山會相中 上靈山 中靈山 잔靈山 가락도도리七絃 朝鮮正樂傳習所員 庚秋岡

第一放送

◇午後〇時五分 (城)物語

◇同六時 詩吟(京城)

◇同六時二五分 (東)支那語

◇同八時 (東)謠曲

◇同八時一〇分 (東)落語

◇同八時四〇分 (大)歌謠曲

◇同九時 (東)時事解說

虎之道 (二)

朴勝烈作 姜湖畵

新春懸賞當選童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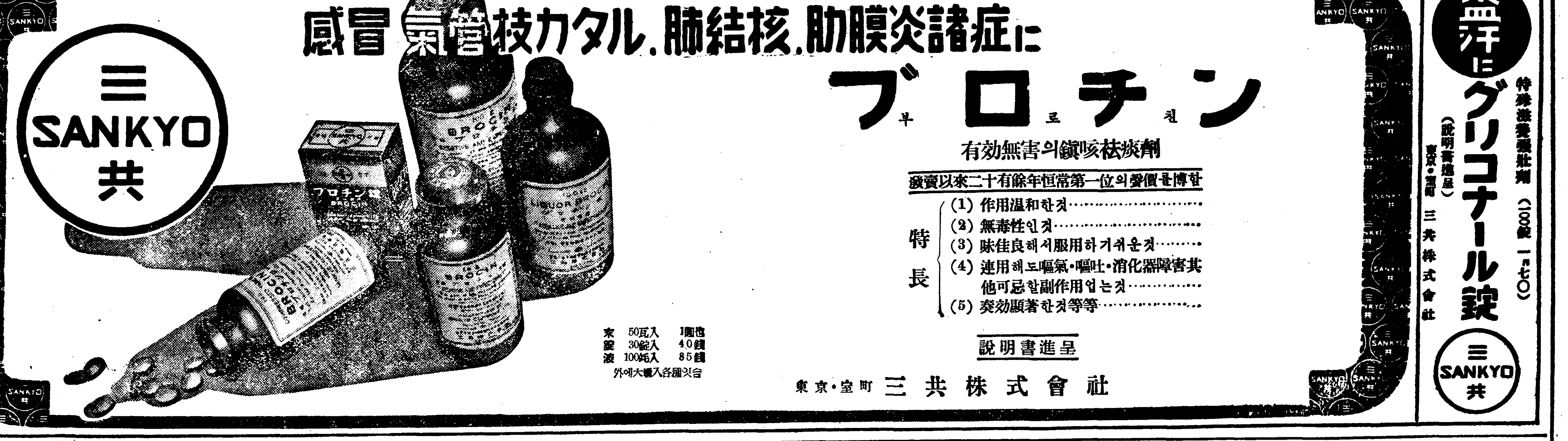
때로 물바람이 몹시몰아치는 그런사이에 호랑이가 몹시놀나 나는 풍을떠드러 그의들에 호랑이는 허엿합니다。 깃든다고 내가 배가고파 합니다。

... 의몸에 파리가붓지못하게 털을곱게 다듬고 훨신잘나서 자랏고 배가 부르게 먹는 그때로 안심하고 살엇습니다。더구나 그대로 뜻대로 그가하랏든것이업기때문에 크다란바위에서 발표될는지모르겟읍니다。엔날 그가쓰든사무리를 전부잇일수가 업어 내고장말대로 쓰겟읍니다。

그의이야기는 이십년전으로 올라갑니다。

『내가 수풀한살때입니다。지금도 힘내기를하면 누구에게 별반질것갓지안코나 그때로말하면 내가 내기운을자랑해도 괸치안을만큼 힘이세고 몸이강대햇습니다 내가살든고향뒤에는 소백산줄기의 주령이란 크다란산이잇엇는데 가을만지나면 나는 그산속에서살엇습니다。산노피가이심리는 거이될것이며 산속에는 큰 나무들이 줍빗서서 혼자는 나무 하려도 드러가기가 무시무시한곳입니다。그러나 농사를 짓는대야 겨우 내먹을 겨량이 되지안코 늙은어머니는 모서야하니 나무나해서 팔어먹어야하지 안습니까 거기는 여기와달러 인종이 뱀꼬이라 농사를지여도 겨울과 봄에는 밥을 비러먹는사람이 만습니다。젊은것이 무전걸식은 하기실코 힘센자랑하는놈이 놀기도안돼서 새벽에 지게를지고 주령고개에가서는 밤이 으슥해야 집에다시도라와슴니다。세월조흘때면 나무판돈으로 하로양식이 되지만 큰도시와도달러 나무갑시 그리빗싸니가 그래 어머니는 바느질수이나 집행이를 의지하고걸어단니시며 자기잡술것은 동령해오기도 햇습니다。언제부터 어머니의몸이 그러케 되엿는지는 나도 잘모르나 한편다리와 한편손을 잘쓰지못햇습니다。그이야기는 다음에하고 내어야기인데 죽령고개에는 나무가 만히섯슬뿐아니라 험한바위가 무지하게 만습니다。크다란바위에는개시 길놈이 잇지요 그굴속에는 호랑이가 살엇다고 합니다。우리는호랑이라고 하나 그곳에서는 산신령이니 산어른이니해서 호랑이란말을 부르지못합니다。엣날에는 그만큼 호랑이가만햇고또 그것이 그리무서웟든모양이지요 지금은 그굴속에도 호랑이는별반업답니다。때로 도라오는길이 느진날에는 노로속에서 호랑이의 울음소리를 듯기도햇스나그것도 그리 자조듯는것이 아니엿습니다。나는 호랑이가 사람을 해하는즘생이 아니란말도 엇스나 호랑이가오는대도 그리겁이 나지안코젓갓게 생각을 햇지요、말하자면 젊어든탓입니다 죽령에는 호랑이외에도 별별즘생이 만슴니다。멧도야지니 사슴이니 여호니 산즘생이란것은 대부분살엇고 산속에는잇는나인 만큼못하지 안을때 그런즘생을

내눈으로 보앗지요。그러나 조금도겁나지안엇스며 도로혀한번잡고 씨름을 해보앗스면하는생각이 들엇습니다。씽하고 여름이지나가는 사슴을 볼때 그뿐이랍닛가나 장을수가 잇나요。어떠날 이엿슴니다 나무를 짐지고 죽령미테 거이다다랏을때 갑재기 뒤에서 으르렁으르렁하는 호랑이소리가 나드군요 해는거이지고 아직도 갈길은먼데 호랑이소리를들으니 겁이탁듭니다 그날은 집에빨리가보겟다는 생각에서 마음을급히먹어그런지모르나 오금이 옷삭하며 머리털이 한올노 치미는것갓슴니다 그날부터 어머니가 엇든집에가서 그벼신몸으로 애를보아준다나요 그게 마음에집히여 빨리가볼가햇드니 뜻밧에도 호랑이놈에 놀낫슴니다그려—그래 나도 모르게 뒤를 움칫하고도라보앗드니 웬걸 호랑이불이 파히멀지안겟지요 죽는가보다—하는생각으로 신발이벗겨지는지 옷이찌저지는지도 모르며 다름질을처슴니다 이제는 호랑이도 멀리 갓으려니만하고 한참뒤에 발거름을 천천히내디디려하니 글세 어느새에 호랑이가 내업에와섯구려—나는 정신을 일헛습니다 사람 살려라는말도 안나왓스며 도망칠 생각도 들지안헛습니다。나는 우똑섯습니다。왜섯는지도모르지요 걸을수업스니 섯스리라고생각되나 호랑이도 웬일인지 내게달려들지를안코 침울가는듯만 쳐다보며 우둑허니안저잇섯습니다。



盜汗に グリコナール錠 (100錠 一圓七〇)
特殊滋養强壯劑 (說明書進呈)
東京·室町 三共株式會社
三 SANKYO 共

シスター商會大サービス

◉蓄音器界空前의巨砲

好時機는또업다 곳申込하십시요

◎申込規定

◉申込는白紙에 朝鮮日報라記入하고四錢切手를貼付하야보내십시요。

◉切手封入申込者에限하야本社特選代表歌曲集「시스터—레코—드歌詞集」의美麗本—冊과씨스터—레코—드割引特典付씨스터—蓄音器呈

◉引換券은規定書와共히發送함

이優秀한蓄音器를 어째 無代進呈하는가

▲꼭한번 읽어보십시요

蓄音器、無代進呈 シスター携帶用

시금까지 各社에서 販賣하고잇는 蓄音器와레코—드의갑은너머나빗쌈니다。其理由는各社가 猛烈한宣傳戰을하야其費用만이라도莫大한것입니다。이費用이機械一臺레코—드一枚에 包含되여서、結局여러분이빗산宣傳費를負擔하고잇는것임니다。우리社에서는各社의激甚한廣告戰에合流하는것을避하고、宣傳費의一部를가지고여러분에게實物一臺식進呈하야其優秀한眞價를알려드림이고、短時日에坊坊谷谷에까지도우리씨스터—의蓄音器한것을알려주시기爲하야새로운宣傳을하엿슴니다。그러나蓄音器를거저바뜨가지고어떠한宣傳을하야주시라는것이가等은업는도잇슴니다만當社로서는이런宣傳을하야주시요 等의購求共鳴者이고또器械가到着하거든近處의여러분또는知人友人의來訪時等當社의豪華한蓄音器로本社의蓄音레코—드를들여드리면 좃슴니다。進呈引換券이到着하거든될수잇는대로市內에게신분갓가히계신분은直接來店하야주시요。먼데분은運賃當社負擔으로보냄니다。申込者多數인때에도蓄音器進呈하오니될수잇는대로이廣告본날부터十日間內로申込하십시요

申込先 東京市本所區緑町三丁目四番地 シスター商會 宣傳部 四錢切手

申込書 新聞名 住所 氏名 ○○線○○驛

申込格式

品質優秀 堅牢保證 實物縮寫

●無代進呈의蓄音器는運賃當商會負擔하야鐵道便으로보내오니近處驛名을必히記入하십시요

寸法 サ高橫縱 約十三·五糎 〃卄九·八〃 〃卅五·三〃

最新式裝置完備 無代進呈의蓄音器 定價貳拾八圓也

代理店募集 (全國一市一郡에한名式希望者는左記로) 東京市本所區緑町三丁目四番地 合資會社 シスター商會 電話本所六七〇番

中部版

伊川郡에 火災

【伊川】강원도이천군동면공수탄리(洞面公須灘里) 리진영(李鎭榮)의집에서 지난십팔일 오후 세시경에 불이나서 맹렬한 불길에 가장집물을 전소하고 가축까지 타서 죽었다는데 이불은 정월임으로 집안사람들은 동내 장에 갔던사이에 불이 터나서 그와가티 전소되었다는데 이미 이천소방조에서 출동하야 소화에 주력하야 다행이 이웃집에는 연소되지안햇다 손해와원인은 방금조사중이라고한다

"戰體"下의 京畿道豫算 一千二百萬圓程度

時局色濃厚한가운대緊縮方針으로査定 二月下旬頃에道會召集附議

소화십삼년도 경기도 예산은 그동안 각과의요구액을 중심으로 지방과(地方課)에서 사정중이든바 십팔일그사정이끗나 십구일부터는 내무부장손에 회부되엿는데 그곳에서 삭감을당한 각과로부터 부활요구(復活要求)가잇을것이며 도지사의 결재(決裁)는 금월말에도 내월초에끗나 이예산안의 예산도회는 이월하순경에 열릴것으로 보힌다 지금지방과의 사정을맛친 세입세출예산의 골자를 들어보면 전시체제아래처한도정(道政)을하야나갈 예산이만큼 내용에따라가는것으로 전체로는 긴축방침(緊縮方針)에서 사정을하엿스나 결과에잇서서는 작년도실행예산 일천이백만원보다 약 갑부러 충액이백만원정도로 되엿고 신규사업(新規事業)의중요한것으로는 총독부의실업교육조장방침에순응하며 군수공업이 요구하는 기술자양성을목적하는 공업학교신설비로 제일년도약이십만원(총경비칠십오만원중 절반)을국고보조이며 남어지절반은도비로 이개년에분할지출을 계상한것이다 그리고 이번예산안에 나타난 도한가지특색으로는 종래대장성예금부(大藏省預金部)와 기타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하야 부군에대부한금액을 일반회계에서 분리하야 새로히 특별회계(特別會計)를 설치한것으로 이 판게로 일반회계는 예산총액이 작년도보다 주가하엿슴에 불구하고 예산에나타나는액은 금한지아는경비는 용서업시 지워버리고 그대신전시체제가 요구하는 여러가지시설에드는 경비는 이것을엣김업시지출하는 말하자면 시국색(時局色)이 농후한점에잇서서는 명년도총독부예산에다소감소를 보게되엿스나 이런종류의 자금을 특별회계로 처리하게되는판게로 그운용스는 부군에는 사문의간이회기라여러가지 편의가 잇슬것으로기대된다

민면장(面面長)의 축사가잇슨후 오후두시에 산회하엿다 그리고 계속하야 하성판에서 판민다수 참석하에 축연을개최하엿다

追加豫算討議後는 魚市場問題上程

廿日에繼續하야廿一日에도續開 新正부터밧분京城府會

오는 이십일 오후두시부터경성부에서는 소화십이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의 이십이만오천백오십일원의 추가경정에대한 협의 추가예산에대한 공유부회 제부의교유부회에잇서서 삼만구천오백구십원회의 예산감소와 제이차를 밧기위한 협의를 하기로 되어 가 열린다는데 대하야는 기보한바와갓거니와 이에계속하야 이십일일오후두시부터는 뚝도수원지(纛島水源池)의 급속려과지증설비(急速濾過池增設費)로 유만사천오백원을 일반회계에 추가계상할것과 경성부수산시장 직영(直營)에 관한건과 이에따른 수산시장 소재지와 그관리방법 변경에 관하야 부청회의실에서 부회를 소집하게되엿다 금후려과지 증설비로 백만사천오백원을 추가하는것은 전년도의 기정채(旣定債)의 차입이 다되지안흔 각종 공사자금을 일반세계금(一般稅計金)에서 일시립체(立替)를 하엿섯든데 작년十월입제 실시 공채(公債)발행에 의하야 기정의 차입을 마친금으로 그립체에의한 충용금(充用金)의수입을 예산한것이다 경성수산 주식회사가 경영하던수산시장은 오는사월부터 부 직영으로 그경영권과 영업권을 일원화(一元化)식혀서 수산물과 그제품의 수급을 원활하게하고 수요의 공정을기하야 공익시장으로서의 사명을다하게 하기로 되엿다 이에따서 수산시장소재지번(地番)에는 시장장과필요한 직원을 상치하야 부조례(條例)와 업부규정에의하야 취인의 공정을기하는동시에 장내의정결과 일반취체를 하게한다는것이다

時局標榜强盜는 잡고보니한洞里사람

犯人은原州署에서嚴重取調中

【春川】나는해외(海外)에서 건너온사람이다 ○○을위하야 자금을내라고 야단하든강도를 잡고보니 뻔뻔한동리사람이엇다 조사한바에의하면 지난십일일오후 열한시경 원주군흥업면 흥업리(原州郡興業面興業里) 사오륙번지 의생(醫生)리기용(李基用)(五六)의 부인 경씨(鄭氏)(四七)는 혹면한 남자가 나타나서 나는 해외(海外)에서 ○○을 위하야 자금을 모집하러온 사람이니 돈을내라고 위협하므로 리원씨는 태연하게 소작료바든돈이잇스니 그돈이라도 줄터이라고 일어서서 기회를엿보아 달려들어 격투를 강행케되자 엽방에서 달려오는바람에 범인은 도망하고 말엇다 그래서 즉시 원주서에 신고하야 수색중이든바 지난십팔일 아츰 모단서로 동리에 잡복중이든범인을 무난히체포하엿는데 그동리에 리주하는 윤병도(尹炳道)(三○)이엿다고하며 원주서(原州署)에서 엄중취조중이라고한다

伊川署歲年末警戒 各面에夜警도實施

【伊川】강원도 이천군은 현재 이천경찰서 갑배서장(甲斐署長)이부임이후 방범사상(防犯思想)을 환기시켜 여러가지로 방범시설을하고잇는데 다시금 구연말을 당하야 군민의생활안정과 치안의만전을 도모하려고 군내각면에서는 소방조원들이 출동하야 야경(夜警)을 실시하는일방 몰

各種施設의實現을 伊川郡民은熱望

新年度의事業으로

【伊川】연도의 바닥을따라 다년간 문제를 거듭하고잇는 이천군내의 당면문제로는 이천읍내(伊川邑內)하수구(下水溝)시설 고성진가교(古城津架橋)관교(板橋)낙양(樂壤)간의도로개수 이천온천간(伊川溫泉間)도로교량개수 오개년계획의 수행기타문화사업의 결함을 일소하는데에대하야 필만군민의 생활상 직접간접으로 사업경제에 미치는 판계가 크니만큼 신년도예산에는 기어이우에말한여러가지의 시설이달성되도록 갈망하고잇다 더욱이 판교낙양간 도로문제는 금년도에 사업비의공사비를 보조하야 순다는것으로 일반이 기뻐날뛰엿습에도 불구하고 고만공사를하야주지 아니하엿슴으로 새년도에는기어이 실현하야 주기를바란다고한다

위 불가합니다 그리고 공원파 명것(廣場)목지대(綠地帶) 에 인식을 더하엿는데 경성에도 노픈곳에 집들만히 짓는것은 조치안흔것으로 될수잇는대로 자연의 풍물을 가지게하야 부민의 위생보건에 힘써야할터인데 우선수도(水道)를 취집오『려롤』이상에는 올리지안토록을 하엿습니다

葛山溫泉施設擴充

【伊川】근오백년간이나 설지령산(雪嶺山)에서 흘로타식하며 일반세인에게 알려지지못하든유명한 이천군갈산온천(葛山溫泉)은 세조대왕의 발견하신 온천으로 여기고잇든 나 단지 교통이불편한관계로 아직까지 발전을 보지못하든곳이나 근년에는 원산 평양등지와 경성방면에서 갈산온천을 차저오는 일반래객이 현저히격증하야 년년이 그수자를 올리고잇는데 이제 작년일년간에 갈산온천욕객을 조사한바에의하면 이만사천팔백오명으로 전년에 비하야 만여명의 증가를 보이고잇는데 새해를 마지한 갈산온천에서는 더욱더 일반욕객의 편의를도옵고저 공원오락장 오락장 공회당등을 시설하야 일반욕객이 온천에와서 권태를 느끼지안코조금도 불편이업도록하고저 대대적으로 시설을확충하기로하엿다

楊州在留支那人도 新政權支持를表明

【楊州】양주군와부면진중리(楊州郡瓦阜面鎭中里) 중앙선(中央線)철도부설공사에 종사하는 간조(間組)출장소호인구리(苦力)『구리두』(苦力頭)장소향(張少鄕)지회로 간조진중리출장소합숙장에 모히여 이번중화민국(中華民國)신정권에 참가하기로결의하고『오

黃海線의起點을 開城으로變更說

開城府民의多年宿望

【開城】현재 토성(土城)과 해주(海州)간인 황해선(黃海線)의 기점을 연장해서 개성을 기점으로하자는 요망은 개성부시부민의 요망의 표적이 되여가지고 흉흉 부민대회를 흥은 부회의 결의로 수차건의 진정하바 잇섯스나 아즉 그실현을 보지못하야 유감으로 지내오든중 금번 철도당국은 경의선을 복선화할필요가잇서 해선로 매수하야 광궤(廣軌)로 개량한다는 소문이잇자 개성상공회의소(開城商工會議所)에서는 가급적 기회에 목적달성에 맹활동중에잇는데 개성부민대 황해선은 가능에 비가티 갈망중이 문제를 위하야 대의원의 참석을 보아서라도 반드시기정을 개성의대부분 개성주민의 미곡을 소모로 매년수십만석의 미곡을 수반하기에 절대필요한것으로 론 일반경제의면리를보아서라도

霞城消防組出初式

【金浦】지난십일에 하성소방 개성으로 기점을변경함이 절대 필요한때문이라한다

楊平郡民의熱誠 各種의獻金이遝至

【楊平】지나사변 발발이래 북지(北支) 남지(南支)에서 활약하고잇는 황군을위하야 양평군각처에서는 적기와가티 국방헌금(國防獻金)의용금(義勇金)휼병금(恤兵金)을 헌납하엿다한다

一金一圓五三錢玉泉面龍川里斤前振興會李書世外五十六人

一金一圓二○錢 玉泉面我新里下谷振興會鄭雲淑外三十一人

一金八八錢 玉泉面新興里新村振興會金變奉外三十九人

一金大○錢 楊平公普校金寄贊

一金五圓 玉泉公普校兒童一同(兒童의一錢二錢式貯蓄하야 모인돈)(日曜日을利用하야番판돈)

一金三圓 江上面屛山里基督教傳道師信徒代表洪顯寶

一金二十圓 龍門面多文里丁奎顯

一金五圓十二錢 龍門面三星里使玉香(香爾)을하야 生活하는女子로一錢二錢貯蓄하야 모인돈)

一金九圓五十錢 靑雲面多大里楊平金鑛夫任奉永外十七名

一金六十一圓 西宗面曲水里張鳳照外十名(道路修路勞賃金一個年分)

一、慰問袋一個(一圓在中)龍門面三星里崔蓮玉

一、金十圓 龍門面馬龍里天主敎牌夫林鍾求外五五名

一、金三圓 龍門面多文里年車夫李五龍外六名(酒草代節約)

一、金二圓 龍門面多文里金振營(花田里基督教代表)

一、金三圓一五錢 龍門面廣灘里龍門靑年團岡本友一外二三○名

一、金三一圓二○錢 廣灘公普校長岡本友一外職員兒童一同(敎員生徒가堤防工事場에서벌어온한것과 벼이삭주어모은돈과 쌀하나씩 節米하야모은돈)

歐米의各都市는 貧民保護에注力

"都計"는地方的、綜合的으로 京城府工營部長視察談

작년오월에 구미시찰의 길을 떠난 경성부 공영(工營)부장 장향위이(長鄕衛二)씨는 지난십칠일 무사히 귀임하엿는데 시찰한 일 오천열한시반에 기자단에게 다음과가튼 이야기를하엿다

이번시찰에 구미인이 백인종(白人種)과 타인종의 차별을 심하고잇는것을 실지로 보앗슴니다 각국의 시설을보니 물질적방면으로는 위대한것이 어서 도저히 일본이 경쟁하야 따를바가 아니라고 생각하엿고 따라서 금후 일본의 향상은 정신적방면에 잇다는것을 확신하엿슴니다 특히 독일과 이태리방면에는화문이힘 즉 기술적연구와 그 실제화에 놀낫는바이 만허 우리도 이에 금후주력하지안흐면 안되리라고 생각하엿슴니다 나의전문인토목(土木)사업으로는 자동차전용도로(自動車專用道路)가 독일가튼데서는 벌서완성되여잇는것이 주목되엿스며 도시방면에잇서서는 인구가너무집중하야 그폐해를업새이려고 애를쓰고잇는 대도시와 이전철(前轍)을 밟지안케다고 계획하는 중소도시를보앗는데 각도시를 개개로 개별적계획을 하느니보다 한지방으로 지방적계획(地方計劃)을 세워서 전체적종합적계획을세우는것이라고 엽장에서 계획을세우는것이라고 생각하엿슴니다 특히도시문제에는 빈민들의처리가 구미각국에서 중요시되고잇는데 빈민들을 축출하는바법이 아니라 이를 개선교화하여주는것은이곳파달리 바른방법으로 생각되여 경성에서도 이빈민들의 개선책에대하야 금후안을 세

仁川殺協豫算總會

【仁川】인천곡물협회(穀物協會)에서는 지난십칠일 오후네시부터 동소회상에서 정기총회를열고 아래와가티 협의하엿다한다

一、昭和十二年度下半期決算報告의件

二、昭和十三年度上半期豫算編成에關한件

仁川의三少年 軍人을志願

憲兵隊에出頭懇請

【仁川】조선에지원병제도실시가 발표되자 각지로부터 지원자가 속출하는모양인데 지난십륙、칠 양일간에는 인천에도 지원자가 삼명이나 잇섯다하며 그들은부내화방정(花房町)삼번지 리종만(李鍾滿)(二九)군을비롯하야 화평정(花平町)이일구번지 오재춘(吳在春)(二九)군과 부도정(敷島町)오번지 김지주(金志朱)(二五)군등이라하는데 부내중정 헌병분견대(仲町憲兵分遣隊)를방문하고 지원병에대한수속을못고 의지굿게 지원병이되겟다고말하엿다고한다

靑年訓練指導 講習會를開催

총독부에서는 청년훈련에 잇서 보병조전(步兵操典)의 초안보급과 철저를도모키위하여 제이사단의 협력을어더 봉사단원을 삭구로난호아 아래와가튼 일정으로 각련대당임으로 청년훈련지도원강습회(靑年訓練指導員講習會)를 실시하기로되엿다

三月十一日―十六日 步七七聯隊(平北、平南)

三月二十一日―二十六日 步七八聯隊(黃海、京畿)

三月十四日―十九日 步七九聯隊(忠北、忠南、全北)

三月九日―十四日 步八○聯隊(全南、慶北、慶南)

또이강습회에잇서서 학과(學科)와 술과(術科)를만히 실시하여 특히술과에 힘쓸수잇스면 적게하고술시간을 만히 선하여 활모범을보여줄 기량을 부여할것을 주안으로하고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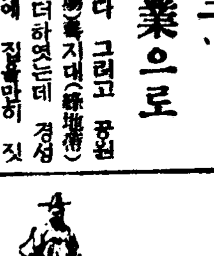
典當舖組合總會

종로전당포조합(典當舖組合)에서는 십구일오후네시 더 태서관에서 정기총회를열고 업계발전책에관하야 여러가지로 협의한바잇섯다

長篇小說 林巨正 【31】

洪碧初 作

金熊超 畵



송악산(三十一)

상궁이하 여러나면네들이 모두 저녁밥을 점고만맛고 팔어서 벌써 상을을 물리내게되엇다 검어석이가 상하나를 들고나가라고하는차에 그아들이 들어와서

『아버지 내밥술 동무 나가서 하고 나가지못하게하엿다

『상은 여기 놔두구 저리가서 말합시다』

『무슨일이냐』

아들은 사람업는 마루방아를 가르치는데 아비가 배행석이 서텁이 김막봉이 세사람이 안것는 고깐아프로 다리고와다

『무슨일이냐 말해라』

『이사서텁이라나 사람 둘이 한데솟서텁인데 와서아버지를 찻다갓소 모두들말이 아버지가 나오기만하면 재억시 잡혀가리라구합디다』

『바람이 어디서 새나간모양인 뒤 세사람을 보고 검어석이가 아들의말을 들은

엇석이는 나가는 처를 붓들고 자기가 박겨못나가는 사정을 중하이 이애기하고 배행석이는여메서는 처냥을 보고 바갓 동정을 알아드리라고 두어마듸말을 일러서 김엇석이의 아들이 저의 어머미를 따라나갓다 상궁의 시중을 들고 십부름을 하라고 박안에는 무수리가 남아잇고 문깐에는 상궁의교군꾼이 남아잇섯다

마루방의 안식구는 뒤주우은 듯 아무소리업시 가만이들어더니 무당을 나갈때 배행석이의 안해가 사내들에게로 와서 장두령이 변하하고 빠져나가겟다 청석골서 구원하러 몰려들어올것을 다알고 돌우갓다

검어석이가 고깐지대를 우에 노힌 의관을 전각편으로 덜 직이 치워노코 고깐속에서 멍석을 끄내다 고깐아메 까는것을 서텁이가 쌍바라지 아프로 끌어오게한뒤 네사람이 다가치 퍼더버리고 안젓다 마루방 상궁방 문깐이 모두

『여러분 가신뒤말슴이요』

『나중이라니』

『나중에는 어떠케하나요』

『우리갈때 가치가거나 뒤에남어잇다가 잡혀가거나 그건자네가 요량해하게』

『처되는사람더러 말을 못해맛는데요』

『갈때 립시해 말해두 낭패될 가치간다면 데라구가가 끼어네 구 가치안간다면 버리구가지별수잇나』

『장내 고모의대를 바더서 이 구당을 마를 사람인데 여간 낭패가 아닙니다』

『바람 잡뒤에 다시나와서 송악산 다섯구당을 도거리루 마터볼수두잇네 념녀말게』

상궁방에서 굿을 다시시작하라고 재속이 나며 꼿 문깐에 잇든 박수가 나가고 방안에잇든 무당이 나가는데 고깐아페 잇는사람들은 모두 정바리지아프로 왓다 서텁이가 휠도를 가지고와서 잡고서서

『상궁마마께서는 언나자시구 여기 기시겟습지요』

하고 말하니 상궁은 흥오되 도아니하고 대왕당 놀근성마니 방에서 나오면서

『마마께서는 신기가 조치못하서서 이방에 누어기실테니 바게서 떠들지를 마오』

하고 말하얏다 이동안에 김

며 『무슨천갈입니까』 하고 물엇다

『살인죄인을 잡으러나간 들이 기신 굿다에를 막 뭐 어들어가려구햇다니 작히 놀라셧겟습니까구 그러나 굿당에 기신줄을 몰으구한일이라 니 용서하시구 살인범인은 도 라하기전에 잡드록 해주시면 조켓습니다구』

비장이 륙수의전갈을 옴긴뒤에 무수리가 상궁의 답전갈을 바더말하얏다

『하지안흔 어사람에게 전위해 비장을 부리셔서 황감합니다 구 살인죄인은 이사람이 어떠케 잡게할수가 잇습니까구 폐일언하구 이사람은 대왕대비마마의 굿을 다마치고 산아래로 나려가면 고만이니 그리 알시사구』

비장이 군관들을 다리고 쪽 며곳을하는지 수군수군 짓거리는소리가 한동안 나다가 끄리고 문깐이 다시조용하야젓다 얼마뒤에 검어석이의 아들이 들어와서 말하야 비장이 올때 군관을 이십여명을다리고와서 먼저잇든사람과 합지어 사오십명 사람으로 굿당울짓가리 에워싸노흔줄을 알엇다

단조용하얏다 굿판에서 장고소리 풍악소리가 들려와다 조용하든 문깐에서 훙제 떠들석한말소리가 낫다 륙수부비장이 류수사도의 전갈을 마러가지고와서 다고 상궁께 엿주라고하야 무수리가 지게문을 열고 내다보

담배피는이의 モカス 樂 / 수모카는主로 喫煙家의 齒藥입니다 그래서수모카를쓰지면 齒牙의검은것이곳대겨집니다 그리고 喫煙家가 아닐지라도 누구의齒牙에나 絶白한빗을나게합니다 수모카는 過度의喫煙에서 생기는입안이해진데? 냄새? 食慾不振? 그것을防止하야口腔을爽快하고 健全한 狀態에둡니다 수모카의粉末에는 그應用을適當하게햇습니다 그것은가루의 散亂을막기爲하는것입니다 一人一罐의使用量은約一個月分、이以上의消費는經濟的이안입니다 / 價十五錢 賣藥店에有함니다 / 定價十五錢 / 一流藥店 化粧品店 雜貨店 百貨店 / 060473

土地公賣 / 平安水利組合ニ於テハ工事中施工ノ關係上畓、田、堅農耕地ヲ買收セルモノ相當アリシガ今ヤ工事ハ竣功シ組合有トシテ存續ノ要ナキヲ以テコノ際同組合ノ蒙利區域平原郡內順安、兩花、東岩、公德四ケ面及大同郡內西川、南兄弟山、在京里、斧山四ケ面ニ散在スル畓、田、計六萬五千餘坪ヲ二十區ニ區分シ公賣ニ附スルコトトリタルガ入札ハ二月五日午前十一時順安所在同組合事務所ニ於テ執行スル由

無效返金 別府淋藥 / 定價二円의비오사른製 / 無代進呈 但內服別府淋藥사신분에限함 直接患部에滲透吸收殺菌하는 / 青箱試用 二円 / 黑箱急性用 三円 / 赤箱慢性用 五円 / 白箱医家用 十円 / 別府市鶴水園 / 本舖 岩里天然堂 振替下関八九四○番 / ◎淋病治療書及說明書進呈

雲母高價現金買入 / 코-구스 廉売 (鉄工、鑄物、家庭用) / 平壤府大和町一○ / 進昌洋行平壤出張所 / 電 一六一四番 二二三六番

中央時報 支局募集 / 朝鮮唯一의週刊時報 / 支局規約書四錢切手呈送 / 京城府林町八二 株式會社 中央時報社

広扇子 單扇 カレンダ 問屋 / 石版美術印刷 以文社印刷所 / 大田府本町二丁目 振替京城二六六七 電八六

吉州支局 電話一一九番

醬油調味料 昭和アミノサン釀造所 (營業案內贈呈) 釜山府凡一町電車終點前

京城府光化門通 朝鮮特許代理局 / 特許・實用新案・意匠・商標出願・審判・訴訟 辨理士任指 / 電光二四七一番

校長 正四位勳三等 沖貞男 / 中野高等無線電信學校 / 東京市中野區江古田 電話中野三二二一・五九七三 寄宿舍完備

●工夫中 ノーシン ●

M135 / 虫退治 マクニン / 먹기쉽고、잘듯고、값헐함 / 勝利는여기에도! 外來驅虫藥을壓倒하는 國產マクニン / 株式會社 藤澤友吉商店

20日ヨリ上映 君と踊らん / ゴーモンブリテイシュ超特作日本版 ジェシー・マシューズ主演の豪華版! / こんなに楽しく、觀客を娛しませる映畫は、そう一年に何本も有りはしない、十人が十人迄これを傑作と呼び新春最大の收穫だと言ふ、世界で一番愛されてゐるマシューズの華やかな日本來訪! / 新春を飾る明朗映畫の響宴 / 日活多摩川特作 あゝ幸福よ / 主演 杉狂兒 星玲子 / 貴方は幸福ですか? 貴方は不幸ですか? ではこの映畫を早く御覽下さい! / 早朝入場大人先着百人様へモダン百科日記進呈 / 煖房完備 / 黄金座 / 國民皆兵令 / 監督・益田晴夫主演・河部五郎・深水藤子 / 朝日・京日世界發聲ニユース / 日活京都作品・國民皆兵令發布七十年記念映

第一劇場 電光一七五五番 / 東日大每北支ニュース / 次週豫告(二十日부터) / 운나되드社特作品 歷史は作夜られる / 現代名篇 人妻椿 前後篇大會 / 主演 川崎弘子 上原謙 佐分利信 / 原作 小島政二郞氏 / 脚色 柳井隆雄氏 / 監督 野村浩將氏 / 松竹大船超特作全發聲 / 大衆料金階上二十錢階下十錢均一 / 一回十二時 二回續映 七時始映 / 每日晝夜三回公演 / 金字塔映畫鑑賞週間 / 一月十七日부터四日間大公開

松竹キネマ / 1月21日ヨリ27日マデ上映プロ時間表

	1	2	3
ニュース		2・26―2・49	6・30―6・53
君若き頃	11・00―1・06	2・54―5・00	6・57―9・03
Gメンを語る	1・08―1・25	5・03―5・20	9・05―9・25
鼻唄お嬢さん	1・28―2・21	5・23―6・16	9・28―10・25

次週豫告 嚙みついた花嫁 第七天國 SeventhHeaven / 明治座

訃告

前承旨警廳吳在殷氏以宿患不幸於本月十七日(陰十二月十六日)午前三時三十分別世玆專訃告

發靷日時 一月二十三日(陰二十二日)

永訣式場 車輦館自宅

發靷場所 自宅前廣場

墓地 鐵山郡站面墓地

嗣子

親族代表

友人代表

護喪

昭和十三年一月十七日

全朝鮮耕地賣買價格 ②

다 中等畓田에 對하야 地方別로 本年度의 賣買價格을 前年度의 그것과 比較하면 如左하다

中等畓田地方別騰落比較

年度	畓 南鮮	畓 中鮮	畓 西鮮	畓 北鮮	畓 平均	同指數	田 南鮮	田 中鮮	田 西鮮	田 北鮮	田 平均	同指數
昭和三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四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五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六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七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八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九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十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十一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十二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增減比較 實數	(+)六	(+)五	(+)三	(+)四	(+)五		(+)三	(+)三	(+)一	(+)一	(+)三	
比較	一〇.五%	八.五%	六.三%	九.五%	九.四%		一六.七%	一〇.〇%	五.九%	五.九%	一一.一%	

即 畓에 있어서는 大分三厘乃至一割五厘, 田에 있어서는 五分九厘乃至一割六分七厘의 騰貴率을 示하얏다. 此等 騰貴率은 昨年度 畓田이 모다 一割六分乃至三割의 昂騰을 보엿든데 比하면 그 騰勢가 相當히 鈍한 것이라 하겟다. 耕地價格은 十、十一兩年度에 잇서서는 中鮮、北鮮地方의 騰貴率이 特히 顯著하얏스나 本年度에 入하야 此等의 地方의 飛躍的 昂騰도 一段落되고 各地方이 모다 騰貴率

實收小作料

가、百坪當實收小作料

實收小作料는 畓에 잇서서는 南鮮地方의 裡里支店 北鮮地方의 所在地方을 最高로 하고 北鮮地方의 所在地方을 最低로 함. 田은 南鮮地方의 麗水支店所在地方이 最高이오 最低는 北鮮地方의 雄基、淸津各支店所在地方이다。

百坪當小作料와 換算金額

地目	等品	最 小作料	高 換算金額
畓	上	[illegible]	[illegible]
	中	[illegible]	[illegible]
	下	[illegible]	[illegible]
田	上	[illegible]	[illegible]
	中	[illegible]	[illegible]
	下	[illegible]	[illegible]

地目	等品	平均 小作料	換算金額
畓	上	[illegible]	[illegible]
	中	[illegible]	[illegible]
	下	[illegible]	[illegible]
田	上	[illegible]	[illegible]
	中	[illegible]	[illegible]
	下	[illegible]	[illegible]

나、前回調査와의 比較

本調査의 結果를 前回와 比較하면 大要와 갓다。 어에 依하여 보면 畓의 實收小作料는 昭和七年後 漸次 遞增傾向을 示하야 本年度도 一分七厘의 增加를 示하얏다。 南鮮地方이 比較的 顯著하고 一年度에 잇서 騰貴되엇슴에 比하야 本年度에 入하야 騰貴되엇다。

實收小作料累年比較

調査年度	畓 上	畓 中	畓 下	田 上	田 中	田 下
昭和三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四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五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六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七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八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九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十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十一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十二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畓은 本年度도 一分七厘의 增加를 示하야 本年度도 一分七厘의 增加이엇다。更히 一方 畓價도 年年昂騰되어 本年度에도 一分七厘의 騰貴이엇슴으로 換算金額의 增加는 昨年度와 가티 三分乃至五分의 增加이엇다。

戰時農產物生產 確保開發을企圖
事變後農村生產力維持

【東京】農林省에서는 事變後의 農村의 生產力維持增進 戰時食料品의 確保에 對하야 對策의 遺憾없기를 期코 十七日부터 四日間 農產物의 生產確保와 開發에 關한 協議會를 東京에서 開催하얏는데 協議事項은 如左하다。

一、農產物의 生產確保에 關한 件
二、야곡原料、農作物增殖獎勵에 關한 件
三、飼料作物及雜穀의 增殖獎勵에 關한 件
四、貿易農作物(苧麻、亞麻、茶等)의 增殖獎勵에 關한 件

政府의 二次米買上
朝鮮內多量應募期待

政府는 出廻를 調節키 爲하야 本月末에 百萬石을 買上키로 되엇는데 今回의 第二次買上은 第一次買上과 가티 內鮮을 通한 買上이오 또 새로이 受渡場所에 馬山을 加한 點等을 考慮하면 朝鮮米에 對하야 보다 더 期待를 가지고 잇는 모양이다

이 第二次買上에 對한 應募豫想은 判然치 안흐나
一、鐵道輸送制限이 解除되어 平常대로 回復된 것
二、米價가 相當한 高價를 維持코 잇는 것
三、海港地와 集散地의 在米가 相當量에 達한 것
等으로 보아 相當한 應募가 잇슬 것으로 期待하고 잇다 買上米의 種類中 今回는 糯米를 加한 것으로 農林省京城米穀事務所에서는 이것을 否定하고 잇다

揮發油配定削減
內油三社는 痛響

朝鮮의 石油業令에 依한 本年의 石油販賣配定은 揮發油에 잇서서는 內油會社 三社에 對한 配定을 全然削除한데 對하야 內油側의 態度가 注目되는데 內油三社의 配定은 總督府의 石油政策實施以來每年漸次減少되어 數量的으로는 크지 안코 또 機械油、輕油、重油는 旣得權을 認하고 잇슴으로 揮發油의 配定廢止에 依하야 內油三社의 朝鮮內의 營業에 對하야서는 그리 影響이 업는 듯하다 揮發油에 關한 限 從來 苦惱의 原因이 되든 內地로부터의 配定外에 移入이 內油에의 配定 廢止에 依하야 全然防止케 될 것은 効果的 處置로서 期待한다

日本水產에서 製氷業制覇

日產系의 日本水產에서는 昨夏의 朝鮮進出開始以來 漁獲處理와 不可分의 製氷事業에 着目하고 積極的으로 資本的支配로써 漁港製氷(威鏡)을 全南製氷(麗水)을 傘下에 收하고 釜山製氷에 對하야서도 絶對過半數를 占하야 同系資金에 依하야 設備擴充에 進出케 되엇다 朝鮮內의 漁獲處理에 잇서서 製氷工場不足이 苦悶인 만큼 日水의 어方面에의 資本進出은 注目된다

京城倉庫狀況

京城手形交換所調査、十二月中 京城府內 倉庫貨物 出入狀況은

	個數	金額
本月入庫	三〇、九六四	二〇四、二三〇圓
本月出庫	一〇六、三三六	二三二、三八〇圓

으로 月末現在高는 十四萬二百四十九個、三百八十萬三千三百六十九圓인바 이것을 前月末에 比하면 二萬四千六百五十八個의 增加이나 金額은 一萬八千七百五圓의 減少이다

無水酒精會社創立

過般의 液體燃料委員會에서 甘藷를 原料로 하는 無水酒精製造事業을 明年度부터 朝鮮機械製酪工場兼設도 可能케되어 注合하고 今後의 調査에 依하야 酎醸盟의 出資에 依하야 行키로 決定하얏슴으로 同聯盟에서는 二十日

一二日頃 京城에서 總會를 開催하고 株式引受工場設置場所等에 對하야 協議決定키로 되엇는데 工場設置場所는 濟州島外에 釜山도 有力한 候補地라 한다

越年以來의 新傾向
預金增大、貸出減
京城組銀十五日現在狀況

手形交換所調査 一月十五日現在의 京城組銀預金 貸出은 越年以來의 新傾向인 預金增大、貸出減少의 動向이 繼續되어 預金은 一億六千九百三十七萬二千圓으로 前月末에 比하야 四百一萬四千圓 前年同期에 比하야 二千八百四十三萬二千圓을 各增大한 一方 貸出은 前月末比四百二十三萬四千圓을 減하고 前年比로도 三千七百四十二萬四千圓의 增이 不過하야 前年下期의 五千萬圓乃至 六千萬圓의 增에는 比較할 수 업는 狀況이어서 貸出回收의 順調를 示코잇는바 前年比는 如左하다

◇預金 (單位千圓)

	本年	前年比增△減
定期	[illegible]	[illegible]
當座	[illegible]	[illegible]
特當	[illegible]	[illegible]
通知	[illegible]	[illegible]
諸預	[illegible]	△[illegible]
合計	[illegible]	[illegible]

◇貸出

	本年	前年比增△減
證書貸	[illegible]	[illegible]
手形貸	[illegible]	[illegible]
當座貸	[illegible]	△[illegible]
割引	[illegible]	[illegible]
荷爲替	[illegible]	[illegible]
計	[illegible]	[illegible]

證券所持減少

一月十五日現在京城組合銀行의 有價證券所持高는 一億八千二百八十七萬八千圓으로 十二月末에 比하야 四十一萬三千圓、前年同期에 比하야 三百八萬五千圓의 各減少이다

東拓貸付減少

一月十五日現在東拓京城支店貸付高는

定期貸付金	[illegible]
年賦貸付金	[illegible]
合計	[illegible]

으로 十二月末에 比하야 十六萬七千六百二十三圓의 減少이다

撫順炭鑛近接地 優秀鑛脈發見

【奉天十九日發同盟】撫順炭鑛東南方馬寺一帶에 十億噸에 達하는 優秀鑛脈이 發見되엇다 함

鰮油

(鰮油의 用途系統圖)

鰮油 ─ 原油…鞣革、保革用 / 原油、乾性油混合加工…페인트 / 原油、水素加入…硬化油 / 原油、加水分解…脂肪酸、꾸리세린 / 原油、眞空加熱攪拌…重合油…石鹼

硬化油 ─ 鹼化 ─ 石鹼(洗濯用、工業用、齒磨用) / 꾸리세린(藥用、火藥用、煙草用、印刷잉크用、化粧品用) / 食用油脂…마루까린 / 加水分解 ─ 脂肪酸、꾸리세린 ─ 스테아린(蠟燭用、酸化用、化學用) / 오레인酸(潤滑油料、纖物糊料)

東海岸에서 나는 鰮으로부터 搾取한 鰮油는 廣汎한 工業原料로서 重用되는데 어떠한 化製品이 생기는지? 따이나마이트까지되고 金을 掘하고 化粧品이 되는 等 變化無雙한 用途를 가지고 잇다。表示하면 如左하다

肥料配給統制 要綱正式決定

朝鮮臨時肥料配給統制의 要綱은 十八日正式으로 決定되엇는데 一部旣報(價格調整條項)한 바와 갓치 그 大要는 如左하다 이것을 直時實行에 移하려하나 肥料年度로서 이미 本年은 半이나 지난 關係로 一綠率的으로는 統制에 入케 하는 結局 本年七月以降의 新年度로 보인다

需給調節

가、各道配定決定 每肥料年度前인 六月十五日까지에 各道로부터 月別需要豫想을 提出케하고 總督府에서 消費實績을 考慮하야 按配決定함

나、硫安配給實施 滿洲化學과 內地硫安販賣

價格調整

會社販賣店의 三者로서 中央配給統制組合을 設置하고 配給事務를 實施함

가、中央組合、地方組合의 價格은 旣報와 갓다
나、指定地外의 運賃諸掛賣價加算은 旣報와 갓다
다、小賣商은 그 販賣價格을 公示

施行取締

가、中央統制組合은 總督府에서 地方組合은 道에서 監督함
나、中央統制組合은 組合規約中의 統制에 抵觸하는 者를 除外하는 規定을 設할 것
다、地方組合도 同上規約中에 違反者除外의 規定을 設할 것

硫安配給配定

硫安配給의 配給機關別 配定은 朝鮮內本年度需要量 四十二萬噸으로 推定하고 如左히 決定하얏다 即農會取扱 十四萬二千噸 金組四萬噸 合計 十八萬二千噸이 民衆配給機關으로서 取扱되고 殘餘의 二十三萬八千噸餘가 朝鮮窒素 滿化及內地移入商等의 中央統制組合下에서 販賣되리라한다

過燐酸、石室도 配給을 統制

硫安統制는 內外地를 通하야 一段落되엇스므로 이제는 그 實績이 어떠할가가 注目되는바 內地方面에서는 다음에 올 것으로서 過燐酸及石灰窒素의 統制가 話題에 오르다한다 即 過燐酸及石窒은 모다 硫安同樣 強力한 統制機關下에 配給統制를 行하고 小賣最高價를 公定하야 價格統制도 行치안흐면 肥料統制의 完璧을 期키 어려움다하며 그 方法은
一、過燐酸、石窒을 모다 硫販會社의 統制에 委함
一、過燐酸、石窒을 合처서 別個의 統制會社를 만들 것
一、過燐酸、石窒을 따로따로 會社를 만들 것
의 三意見이 잇섯스나 目下 何等 具體化치 안헛는데 重要肥料이오 그 統制問題는 早晩表面化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對하야 朝鮮側은 別意見이 업스나 內地側도 當然히 强力統制에 進出하면 朝鮮도 그 影響을 受하겟슴으로 그 形勢를 注目코 잇다

總監決裁어더 一兩日中發表

朝鮮의 硫安小賣價格은 目下 東京에 잇는 穗積殖產局長、大野政務總監의 決裁를 어더 一兩日中 總督府通牒으로써 各道에 通告케되엇다 그러나 三圓八十四錢으로 發表될 것은 旣定事實일 으로 配給令에 實施된 十五日

地方特色順應 都市計畫必要
長瀨府工營部長視察談

長瀨京城府工營部長은 歐米各國에 出張中이든바 十八日 歸任하야 如左히 말한다

歐米各國은 物質方面이 非常히 發達되어 日本이 二、三十年이나 걸려 資源을 開發하야도 到底히 따를 수 업다 獨逸、伊太利와 가튼 資源이 乏한 나라도 學問의 힘을 實際로 應用하야 技術力으로 하고 잇다 例컨대 石油가 업스면 石炭液化事業을 이리키는 等 化學工業이 大進步되어 잇다 日本은 資源이 적으나 日本精神力으로 하고 잇다 日本도 基本化學을 硏究하고 잇는 만큼 發展을 圖하여야 한다 歐米諸國은 水力電氣나 自動車專用道路나 都市經營이 모두 進步되어 잇고 都市計畫으로는 大都市와 小都市로 區分되어 各其經營코 잇는데 大都市는 人口가 調密하야 弊害가 만흠으로 어떠케 이것을 處理할지 골치를 알코 잇다 地方計畫은 地方에 適當한 工場을 設置하야 市街의 繁榮을 圖하기에 努力하고 잇다 分散的 計畫을 樹立하나 此等은 工業의 地方分散에 依하야 經營을 圖하는 것이다 朝鮮도 地方의 特色에 順應하야 都市計畫을 樹立함이 最良한 方法

市中市勢不立

京城市中 硫安市勢는 요지음 各驛渡로 四圓을 唱하고 잇섯는데 硫安小賣 最高價發表를 압두고 十九日 市中에는 市勢가 서지 안허 氣配不明이엇다

에 波及하야 施行될 것이오 어미 이갑으로 實際는 賣買되고 잇는 모양이다

株式 一息裡에 下澁

今日의 市勢 (十九日)

前場一息

昨日의 暴落으로 一段投物은 整理된 셈이나 아직도 落潮는 不息하야 新低價로 다시 低落되엿스나 一方으로는 利喰買物도 相當하야 市勢는 低含狀이면서도 一息裡의 下澁으로 少堅裡에 前場을 마쳣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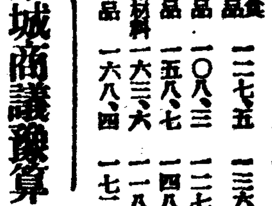
後場下澁

後場은 東新百六十七圓三 鐘紡二百七十二圓一에 寄付한後 下澁裡에 保合이엇다

急落後의 一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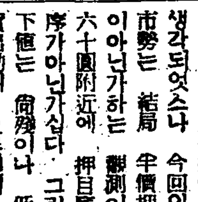
對支國策發表前後의 市勢가 發表로 安堵는 하엿스나 發表의 內容을 속기로 檢討해보면 政府의 決意는 相當히 重大하다고 觀測되는 同時에 長期戰도 將次 懶보담 오히려 그 背後에 準備를 注力하지 안흐면 안 되겟스므로 이 新事態로 因한 情勢推移는 갑작이 豫斷을 不許하는 바이어서 積極的 行動을 實方으로서는 取할수 업다는 것이다 如何튼 疲勞의 極에 達하야 마침내 賣叩를 機會를 기다리든 것이다 蘇聯의 對日態度、중國의 獨逸을 通한 調停의 失敗가 니 米合作說이니 하는 따위의 相當히 잇는 소리가 갑작이 惡材가 된 것은 아니오 그러한 것을 口實로 하야 賣叩의 機會를 만드는 同時에 强行

東拓의 靑島出張所는 事變以來 松田出張所長以下 大連에 와서 待機中인데 靑島의 同出張所建物은 何等 被害가 업고 松田氏以下는 本社와 協議한 後 近間 靑島에 歸還하야 業務를 再開하리라고



驛亭上 (一月十四日) 地主京城府慶雲町六四 閔衡植 (一月十五日)食料品雜貨商 京城府三坂通六三番地 沈貞燮

市場 小感



(株)……市勢는 昨日의 暴落이 되고▲다시 逆轉하야 下値는 相當하얏던 바가 잇스나▲買方의 狼狽는 相當한 바가 잇스나▲大局을 見하는 이로서는 方針을 變更하면 도로혀 失敗일 것▲長期戰에 嫌氣를 보르는 重要工業動員法發動等으로 時局을 더욱 重大視하는데서 情勢를 보자는 一步退却▲一步退却은 前進을 爲한 退却이오 決코 永遠한 退却이 아니다▲下値는 그다지 만타고는 보기어려우므로 한번더 低價를 보이면 押目을 買進함이 오틀일? ▲勿論市勢의 推移는 周密한 注意가 必要 (金剛城)

(米)……今回의 百萬石買上은 應急措置法案에 依한 買上이 아니오 季節買上即出廻調節을 爲한 買上▲그러므로 季節買上은 此로써 政策을 다한 것이 아닐는지 正米는 丸正三等三十一圓五十錢으로 昨日보다 四十錢의 突高▲그런데 正米와 當限의 市勢는 正米의 割低로 賣方으로서는 어데까지 買緊할 수 있는 時期

米期 買上發表 躍騰

前場爆發

昨夕農林省으로부터 突然 百萬石買上發表에 따라서 各地買氣殺到 今朝阪地先限은 三十四圓八十二錢의 二十三丁의 突高와 東京先限三十五圓十四錢의 二十八丁高를 報하야 當地도 寄限三十二圓五錢의 五十三丁高를 보엿스며 先限은 三十二圓九十錢 五十四丁突까지 押上하야 前場을 大引하엿다

後場細刻

後場은 三十一圓三十錢인 一丁高로 始場한後 三十一錢으로 細刻이엇다 底意는 頑强하엿다

正米 定期高로 奔騰

京城急騰

期待滿을 告한 政府의 買上發表로 人氣强度로 所有側의 態度도 急騰强化하야 市勢는 三十錢高로 올을示하엿다 ㊂三等三一、六〇 四等三一、四〇 一等白米一三、〇五

仁川反騰

買上決定을 발표한 軟落하기 始作하에 突然昨夕百萬石의 買上發表로 俄然 人氣沸騰하야 買氣旺盛하게 되어

海外經濟 (十八日)

[illegible]

銀行券 (十八日)

◆朝鮮銀行券◆ / ◆日本銀行券◆ [illegible]

鰮油粕·粉麥

◆阪神鰮粕◆ / ◆阪神鰮油◆ / ◆日本麥粉市勢◆ [illegible]

手形交換·金利

◆京城手形交換高◆ / ◆東京金利◆ [illegible]

金銀價

◆東京金銀價◆ / ◆京城市中金銀價◆ / ◆大阪金利◆ [illegible]

對外爲替

◆全買入價◆ [illegible]

正米

◆京城正米◆ / ◆仁川正米◆ / ◆大阪正米標準價◆ [illegible]

正租 [illegible]

雜穀

◆京城雜穀◆ / ◆仁川雜穀◆ [illegible]

綿絲布

◆京城綿絲布市勢◆ [illegible]

滿洲商況

◆大連特產市勢◆ [illegible]

牛價押은買?

昨日의 暴落、今朝의 續落으로 下落狀이나 市勢의 飛躍이 甚하야 「아조우게 로」로 보기는 어려우나 그리라고 어데까지 追落할지 아니니 大勢的으로는 底見이 多하다

爆發後에 一息

政府米買上이 發表되고 一時激騰하였으나 …… [illegible]

百萬石을買上

政府는 昨夕에 突然百萬石의 買上을 發表하얏다 此는 昭和十二年十二月十八日에 開催한 第十八回米穀委員會의 決議에 基하야 米穀統制法第四條規定에 依한 出廻調節을 하기爲하야 米穀買上을 實施하기로 되엿다 左記要項에 依하야 買入豫定數量約百萬石

一、買入豫定數量約百萬石
二、買入時期=保證金納入은 一月二十七日 申請受付는 同二十八日에 買入決定은 二十九日
三、買入事務及受渡場所는 朝鮮에 잇서서는 前回와 同一하다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買方

釜山暴騰 / 大邱反撥 / 群山暴騰 / 木浦反高 [illegible]

今日財界 (十九日)

◆米 / ◆株 [illegible]

京城商議豫算
總額十五萬圓

京城商議에서는 二十日午後二時부터 役員會를 開하고 昭和十三年度商議豫算에 對하야 協議한 바 十三年度 總額은 約十五萬圓內外이오 前年度보다 約一萬圓의 減額인바 이것은 總選擧의 關係로서 業務에 何等支障이 업다 한다

商議特別議員

京城商議特別議員인 加藤鮮銀總裁、有賀殖銀頭取、松井米倉社長의 三氏가 退職或은 死亡하야 缺員中이든바 十七日附로써 京畿道知事로부터 左記三氏가 任命되엿다

京城商議特別議員 松原、林、武者三氏
鮮銀總裁 松原純一
殖銀頭取 林繁藏
京電專務 武者鍊三

經濟界消息

○殖銀支店長級近間異動=殖銀에서는 漢城銀行의 常務取締役轉出과 光州支店長의 停年에 伴한 支店長、幹部級의 異動을 近間 行할려인데 此際不必要한 廣範圍의 異動을 行치안을 方針이라고
○靑島東拓의 靑島出張所近間業務再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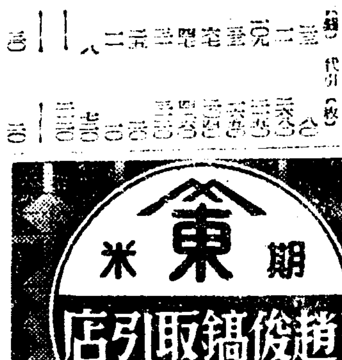
仁川物價指數 (十二月)

仁川商工會議所의 調査에 依하면 昨年十二月中 仁川物價指數는 部別都賣部와 小賣部로 區分하면 左記와 如하다

品名	都賣部	小賣部
穀類	一五〇、八	一四七、三
調味料	一二二、五	一〇七
飲料	一〇六、一	一二二、一
其他食料品	一二七、五	一三六、二
衣類品	一〇八、三	一二七、七
燃料品	一五八、七	一四八、六
建築材料	一六三、六	一八八、六
雜品	一六八、四	一七二、二

이라고 報告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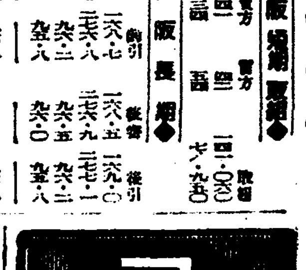
朝取短期主要取組高 / 朝取短期 / 大阪短期 / 東京短期 / 東京現株 [illegible]



期米 東 道後鎬取引店 仁川海岸町三丁目 電話 二六九 一一六、三九六

株式 期米 玉 京城黃金町 仁川本町 柳來恒取引店

朝取期米賣買高 / 大邱期米 / 期米 / 朝取期米 / 大阪長期 / 群山期米 / 木浦期米 / 釜山期米 / 大阪期米 / 東京期米 / 大阪期米取組 [illegible]



期 米 益 康益夏 仁川

京城物價 (十九日)

◆白米(斤、單位錢) / ◆肥料 / ◆紙物 / ◆京畿道林業會公定價 / ◆砂糖 / ◆洋灰 / ◆綿絲布 / ◆人絹 / ◆牛皮 / ◆木材 [illegible]

砂糖 / 生絲 / 人絹 / 棉花 / 綿糸

◆大阪砂糖◆ / ◆東京砂糖◆ / ◆橫濱生糸◆ / ◆各地人絹◆ / ◆大阪棉花◆ / ◆大阪綿糸◆ / ◆日本各地期米◆ [illegible]